

# 恩光衍世

은광연세(恩光衍世)는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지다’라는 뜻으로  
조선 후기 대표적인 서예가인 추사 김정희가 남긴 글이다.

대기근에 처한 제주도민을 구하기 위해 평생 모은 재산을 내놓은  
의인 김만덕에 대한 칭송이 그가 세상을 떠난 지 30년 후,  
추사가 제주에 유배 왔을 때 까지 계속되자 그의 선행을 기려  
3대손인 김종주에게 써주었다고 전해진다.

지난 2010년, 6대손인 김균선생이 가보로 보관해 오다가  
재단법인 김만덕재단의 전신인 사단법인 김만덕기념사업회에 기증하여  
현재는 김만덕기념관에 보관되어 있다.

## 恩光衍世

金鍾周大母大施島饑被  
殊異之恩至入金剛山楮  
紳皆紀傳歌詠之古今罕  
有也書贈此扁以表其家

##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지다

김종주 조모께서 섬이 굶주릴 때 크게 베푸셔서  
남다른 은혜를 입어 금강산에 들어가기에 이르니  
사대부들이 기록하여 전하고 노래로 읊은 것은 고금에 드물다  
이 편액을 써서 주어 그 집에 표한다

김만덕기념관 소식지

# 恩光衍世

은광연세 | 2024 vol. 9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지다





제주도는 선물 36×25×53cm, 현무암, 조합토, 1245°C 소성, 2018년.

## 표지 이야기

화산섬 제주의 시원에 주목하여 작업해온 조윤득 작가에게 제주도는 각별하다.  
단순한 물질 재료가 아니다.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자 보물이다.  
제주섬이 용암 분출로 형성된 ‘돌섬’이고,  
이 돌섬 위에 현재 제주가 응축된 시간을 품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여 돌섬은 제주(사람)의 정체성이자 삶의 기반이다.  
<제주도는 선물>(2018년 작)은 작가에게 제주돌이 꽃다발처럼 다가온 아름다운 선물임을,  
암반 위에 꽃핀 돌꽃처럼 귀한 존재임을 표현한 작품이다.

### 조윤득

제주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이화여자대학원 조소학과 졸업

개인전 14회(제주, 서울, 미국, 일본) 단체전 200여 회  
레지던시(일본 사가현립 도예의 숲, 미국 버몬트스튜디오센터, 김해 클레이아크 미술관)

현재 한국미술협회제주도지회, 제주조각가협회, 한국여류조각가회, 제주창작공동체 우리 등 회원

김만덕기념관 소식지

# CONTENTS

은광연세 | 2024 vol. 9



발행처 (재)김만덕재단  
발행인 양원찬 이사장  
발행일 2024년 12월  
편집인 강영진(김만덕기념관 관장)  
진행 광 민, 김창현, 전학봉,  
김미영, 김세영, 강혜원  
사진 김성훈, 전학봉 외  
교정 강혜원, 김세영, 김미영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지로 7  
전화 064-759-6090  
팩스 064-759-6097  
홈페이지 www.mandukmuseum.or.kr  
기획·디자인·인쇄  
일신옵셋인쇄사 Tel. 064-758-1500

©김만덕기념관 소식지  
『은광연세』 제9호에 실린 내용물의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지합니다.



## 02

### 인사말

발간사\_ 양원찬 김만덕재단 이사장  
축사\_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04

### 활동

김만덕기념관 2024 한 해 동안 활동

## 06

### 나눔

세계기부지수

## 10

### 테마 1

김만덕기념관 개관 10년의 기록

## 32

### 학술연구

김만덕국제상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

## 40

### 테마 2

김만덕을 기록한 사람들

## 50

### 기획전시 1

2024 김만덕기념관 개관 9주년 특별기획사진전  
산지천 포구, 항구가 되다

## 56

### 테마 3 - 2024 김만덕 주간

제45회 만덕제 봉행  
제45회 김만덕상 시상식  
2024 김만덕 주간 나눔 큰 잔치  
2024 김만덕 주간 행사 프로그램

## 72

### 기획전시 2

2024 김만덕주간 여성 인물 추모제 지역사례 공유

## 82

### 테마 4

김만덕기념관 개관9주년 기념  
김만덕기념관 나눔봉사학교 만덕서포터즈  
만덕서포터즈 여러분을 기록합니다  
김만덕기념관 2024 교육프로그램  
2024 김만덕기념관 만족도 조사

## 90

### 아름다운 나눔

후원 및 기탁 리스트



## 발간사



설레는 마음으로 새 마음 새 뜻을 다짐하며 시작한 갑진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며 김만덕기념관의 활동을 모아 『은광연세』 제9호를 발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소식지에는 올 한 해 동안 김만덕기념관이 ‘김만덕 나눔·도전 정신의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문화소통공간’으로서 펼쳐온 다양한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올해는 미래세대인 유아와 어린이들에게 김만덕과 나눔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나눔 교육사업을 활발히 펼쳤습니다. 그리고 기념관이 위치한 산지천을 조명하는 전시와 전국 각 지역의 여성인물 추모 의례에 대한 비교 전시 등 의미 있는 기획전시가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올해로 45회를 맞이한 만덕제 봉행 및 김만덕상 시상식과 나눔 큰잔치 등 김만덕주간 행사, 다양한 학술사업과 만덕봉사단의 봉사활동 등 김만덕의 정신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 김만덕국제상이 제정되어,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행 준비과정에서부터 실제 시행과정까지 기념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김만덕의 정신을 알리고 실천하며, 김만덕기념관이 문화 예술과 교육, 나눔의 중심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025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김만덕기념관의 발전을 위해 늘 함께해 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그리고 애정으로 격려와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24년 12월

김만덕재단 이사장 양 원 찬

## 축사



김만덕기념관 소식지 『은광연세(恩光衍世)』 9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김만덕의 나눔과 도전정신을 널리 알리며 우리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애쓰고 계신 (재)김만덕재단 양원찬 이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거듭된 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부의 양극화 심화에 따른 사회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상존합니다. 제주 역시 양극화 심화로 청년이 꿈과 희망을 갖기 어렵고,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양극화 해소, 화합과 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에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일깨우는 김만덕의 선행은 큰 귀감이 됩니다.

조선 최초의 여성 CEO로서 오늘날에도 더욱 강조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모범이 될 의인 김만덕의 활약상을 제주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더욱 널리 알려나가야 합니다.

제주도정은 김만덕의 나눔정신, 수눔음정신으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눔으로 모두가 풍요로운 제주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제주가치 통합돌봄’정책을 더욱 촘촘히 수행하며 제주공동체를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은광연세(恩光衍世)』 9호 발간으로 김만덕의 나눔정신이 시공간을 초월해 제주와 대한민국, 나아가 전세계로 확산되기를 희망합니다. 함께하시는 모든 분의 풍요로운 일상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 영 훈



## 김만덕기념관 2024 한 해 동안 활동

- 1. 25. 제주탐모라로타리클럽, 제주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나눔사업 전달식
- 1. 31. 2023 김만덕기념관 나눔공모 전시 <모두가 행복한 나눔> 전시 종료  
- 전시기간: 2023. 12. 15. ~ 2024. 1. 31.
- 2. 2. 국제로터리 3662지구 제주만덕로타리클럽 설맞이 나눔
- 2. 6. 제주지방기상청 나눔사업 전달식
- 2. 7. 김만덕기념관 운영위원회
- 2. 17. 토요일은 김만덕! 상설교육프로그램 상반기 운영 시작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 상반기 프로그램 갓 만들기      - 김만덕 동화 영상 시청 및 교구 활용 만들기 체험
- 2. 23. 김만덕기념관 나눔봉사학교 '만덕서포터즈' 활동가 모집  
- 모집 기간: 2. 23. ~ 3.15.      - 결과 안내: 2024. 3. 16.
- 2. 24. 토요일은 김만덕! 체험프로그램 운영 시작: 2월 프로그램 김만덕투어
- 3. 12. 대한적십자사 김만덕주간 공동 나눔사업 전달식
- 3. 23. 나눔봉사학교 자원봉사자 양성 교육 및 만덕서포터즈 위촉식
- 3. 29. 2024 \_ Vol.1 Spring 김만덕 웹진 발행
- 3. 31. 토요일은 김만덕! 체험프로그램 운영: 3월 프로그램 제주항 사진 여행
- 4. 5.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사랑 나눔푸드마켓·뱅크 나눔사업 전달식
- 4. 6.~ 나눔봉사학교 '만덕서포터즈' (매주 토요일): 도서나눔 프로그램 '헌책 줄게 새 책 다오'
- 4. 16. 동부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지원물품 전달식
- 4. 17.~ 찾아가는 김만덕기념관 운영 시작  
- 대상: 도내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3~4학년      - 김만덕의 삶과 나눔의 의미 교육
- 4. 23. 나눔봉사학교 '만덕서포터즈': 도서나눔 프로그램 '헌책 줄게 새 책 다오'  
- 운영기간 변경: 월요일을 제외한 6일 무인운영(토요일 만덕서포터즈 특별운영)
- 4. 27. 토요일은 김만덕! 체험프로그램 운영: 4월 프로그램 시티투어 버스타고 플로깅 여행
- 5. 25. 토요일은 김만덕! 체험프로그램 운영: 5월 프로그램 성안올레 걷기
- 5. 29. 김만덕기념관 개관기념일
- 5. 29. ~ 8. 31. 김만덕기념관 개관 9주년 특별기획사진전 <산지천 포구, 항구가 되다>
- 5. 29. 밥 걱정 없는 제주 만들기: 릴레이 쌀 기부 캠페인 기부 동참 1호 기관 김만덕재단 전달식
- 6. 13. 대정읍장애인협의회 나눔쌀 전달식
- 6. 28. 김만덕상 수상자 자료 아카이브 및 영상 제작(2024. 1. ~ 6.)  
- 성귀량(7회), 고춘옥(8회), 김경생(9회), 오태인(10회)
- 6. 29. 토요일은 김만덕! 체험프로그램 운영: 6월 프로그램 곳자왓 생태 탐방(호우특보로 취소)



- 7. 3. 2024 \_ Vol.2 Summer 김만덕 웹진 발행
- 7. 6. 토요일은 김만덕! 상설교육프로그램 하반기 운영: 김만덕 입체 퍼즐 만들기
- 7. 6. 나눔봉사학교 '만덕서포터즈': 도서나눔 프로그램 '헌책 줄게 새 책 다오'  
- 운영방법 변경: 1권의 책을 기증하고 새책 3권 받는 방식으로 변경
- 7. 27. 토요일은 김만덕! 체험프로그램 운영: 7월 프로그램 MBTI를 활용한 부모교육
- 8. 3. 전복농협, 옥구농협, 김제농협 쌀 기부 전달식
- 8. 13. 송연희 가족 나눔사업 기부금 전달식
- 8. 21. 연화원 나눔사업 쌀 전달식
- 8. 31. 토요일은 김만덕! 체험프로그램 운영: 8월 프로그램 마술 공연
- 9. 10. 제주지방기상청 나눔사업 기부금 전달식
- 9. 10. 국제라이온스협회 354-G(제주) 지구 나눔사업 계란 250판 전달식
- 9. 27. 2024 \_ Vol.3 Fall 김만덕 웹진 발행
- 9. 28. 토요일은 김만덕! 체험프로그램 운영: 9월 프로그램 사라봉 숲 체험
- 10. 19. 김만덕재단 이사회
- 10. 19. 김제농협쌀조공법인 김만덕주간 물품후원 전달식
- 10. 20. 2024 김만덕주간  
- 제45회 만덕제 및 김만덕상 시상식 - 나눔큰잔치  
- 여성인물 추모제 지역사례 발표회
- 10. 20. ~ 12. 31. 2024 김만덕주간 <여성인물 추모제 지역사례 공유> 기획전시
- 10. 22. 서귀포수협 서귀포은갈치축제, 제45회 김만덕상 경제부문 수상자 김미자 쌀·기부금 전달식
- 10. 23. 제주시·서귀포시 푸드마켓, 서귀포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쌀 전달식
- 10. 25. 2024 김만덕주간 청소년 창업 아카데미
- 10. 26. 2024 김만덕주간 올레 만덕산책
- 11. 30. 토요일은 김만덕! 체험프로그램 운영: 11월 프로그램 나만의 바다 만들기
- 12. 11. 김만덕국제상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
- 12. 11. 김만덕상수상자회 기부금 전달식
- 12. 13. 양채윤, 김순희 기부자 감사패 전달식
- 12. 17. 2024\_Vol.4 Winter 김만덕 웹진 발행
- 12. 17. 건입동 산지천축제운영위원회 기부금 전달식
- 12. 17. 태평수산 오재혁대표 기부금 전달식
- 12. 24. 한백김치와 함께하는 사랑의 나눔 전달식
- 12. 25. 토요일은 김만덕! 체험프로그램 운영: 창작가족극 '할머니의 이야기치마'
- 12. 26. 김만덕기념관 운영위원회
- 12. 30. 소식지 은광연세 9호 발간







# 세계기부지수 World Giving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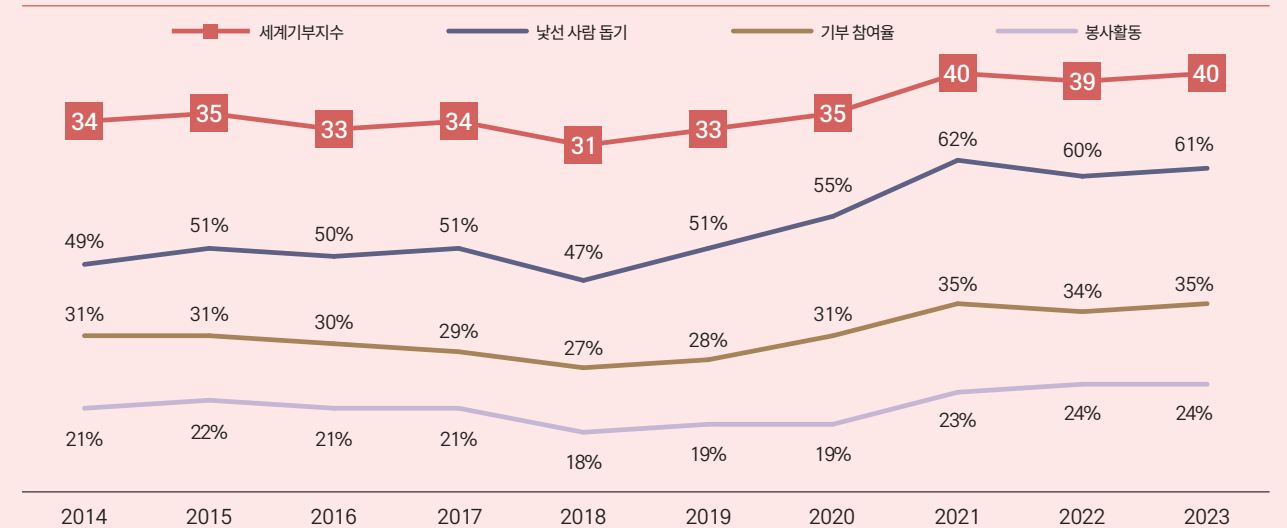
영국 자선지원재단(CAF, Charities Aid Foundation)에서는 2010년부터 매년 전 세계 140여 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나눔 활동을 조사하여 결과를 순위로 발표하고 있다. 국가별로 약 1,0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며, 집계된 통계를 기반으로 지수를 산출하여 순위를 매기고 있다. 점수는 각 국가의 응답 평균을 계산하여 부여하고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국가의 많은 인구가 기부에 참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최저 점수는 0점, 최고 점수는 100점이다. 2024 세계기부지수(2023년 현황) 설문조사 참여자 수는 145,702명이며 총 142개국에 참여했다.

## 세계기부지수의 조사항목

- 도움이 필요한 낯선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는가
- 자선 단체에 금전적인 기부를 한 적이 있는가
- 자원 봉사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



## 세계기부지수 총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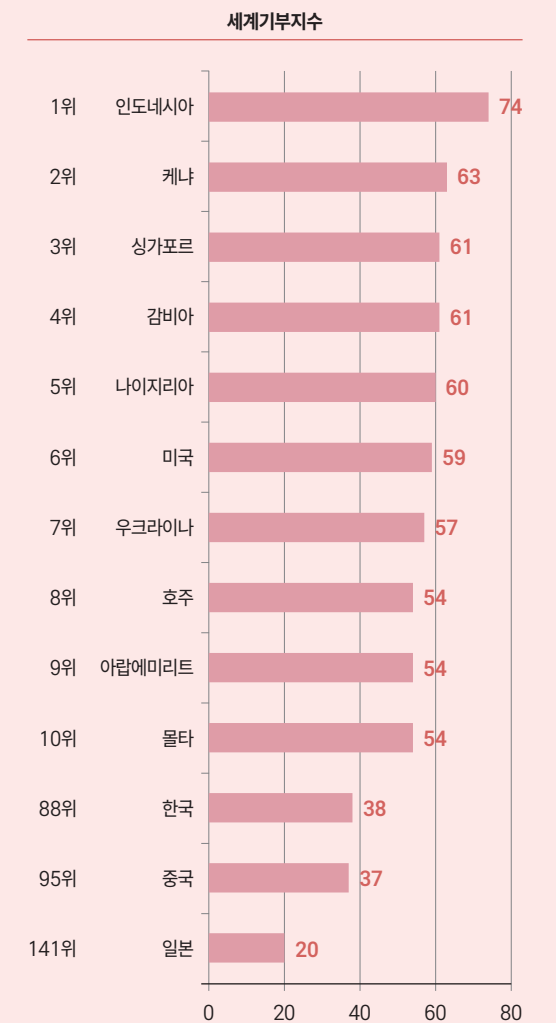


출처: World Giving Index 2024 CA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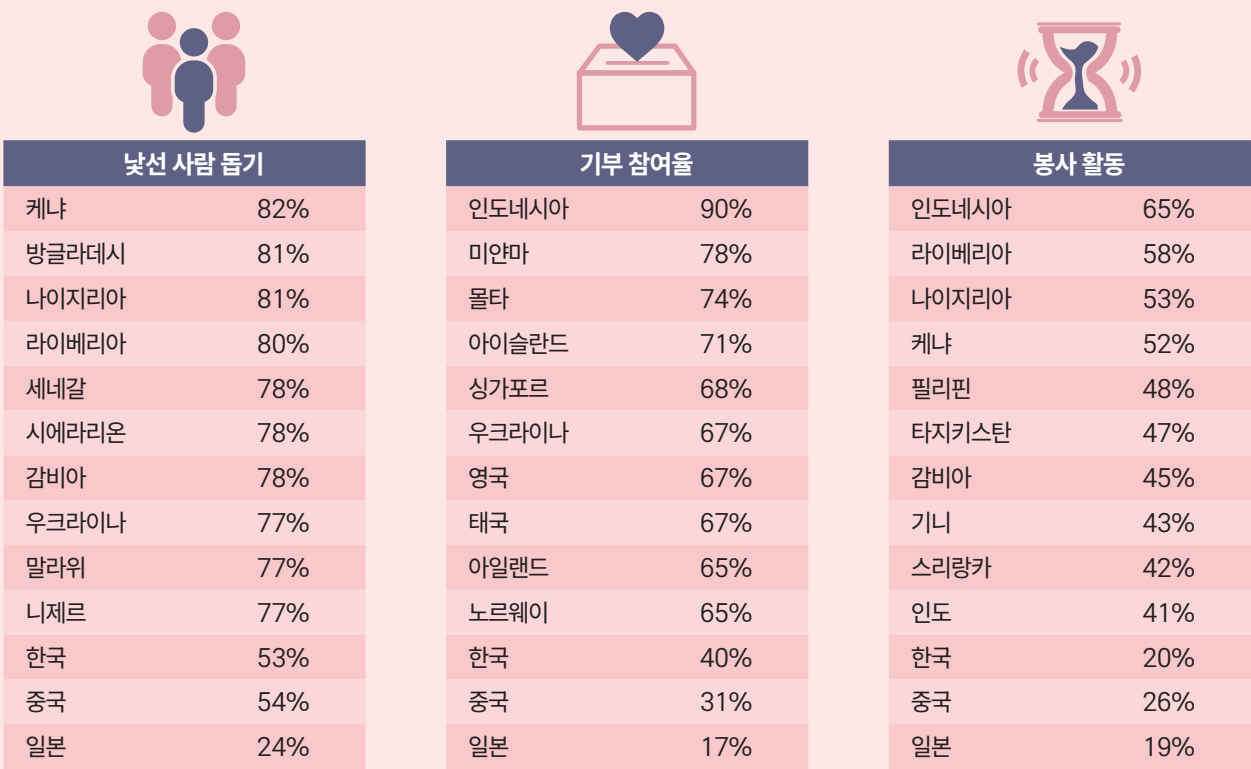
2024 세계기부지수(2023년 현황)는 40점으로 2021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지수가 돌아왔다. 세계기부지수는 2014년 34점을 시작으로 2020년 35점으로 비슷하게 유지되어 오다가 2019년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39점으로 지수가 떨어졌지만 2023년 다시 지수가 최고 지수를 달성하면서 세계적으로 많은 인구가 기부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라별 기부 현황

인도네시아는 2017년 미얀마를 처음 추월한 이후 7년 연속 세계 기부 지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민 10명 중 9명이 자선 단체에 기부했으며, 10명 중 6명 이상이 자원봉사를 했다. 이 두 가지 행동 모두에서 1위를 차지했다. 싱가포르의 자원봉사와 기부 비율을 크게 올려 올해 지수에서 19 계단 상승한 3위를 차지했다. 최근 싱가포르 정부는 자선활동의 비율을 늘리기 위해 자선단체와 기업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 자선 기부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을 계획에 포함해 정부의 노력이 자선활동을 늘릴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몰타는 처음으로 상위 10위권에 진입했다. 몰타의 지수 점수는 54점으로, 기부금 증가에 힘입어 작년보다 5점 상승했다.



각 부문별 TOP 10



출처: World Giving Index 2024 CAF

한국의 기부 현황

|          | 2022 | 2023 | 2024 |
|----------|------|------|------|
| 낮선 사람 돕기 | 53%  | 57%  | 53%  |
| 기부 참여율   | 36%  | 40%  | 40%  |
| 봉사활동     | 16%  | 18%  | 20%  |
| 세계기부지수   | 35   | 38   | 38   |
| 순위       | 88   | 79   | 8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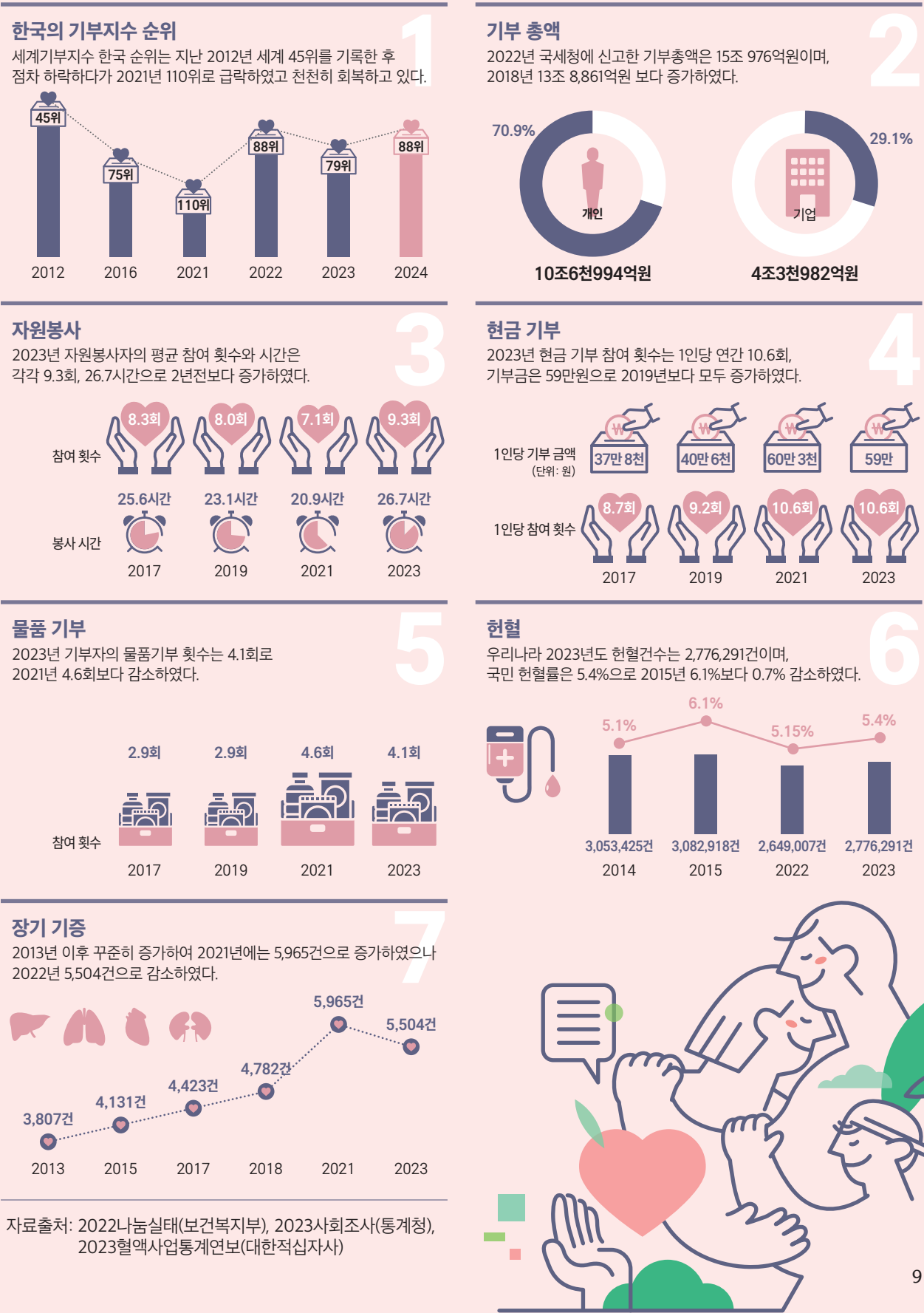
출처: World Giving Index 2022 CAF, World Giving Index 2023 CAF, World Giving Index 2024 CAF

한국의 종합 순위는 142개국 중 88위이다. 지난해 79위에서 9단계 하락한 순위이다. 2022년 88위에서 2023년 79위로 순위가 상승했으나 다시 88위로 떨어졌다. 현금 기부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봉사활동은 2023년에 비해 2% 상승하였으나 낮선 사람 돕기 부문에서 감소한 것이 하락의 원인으로 보인다.

세계기부지수는 기부금액이 아닌 기부행위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기부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이지만,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 한국의 순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지만, 앞으로 성장할 대한민국의 기부 문화를 기대할 수 있다.

국내 나눔 현황

정부에서는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고 나눔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나눔실태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김만덕기념관 개관 10년의 기록

지난 2015년 5월 29일, 김만덕기념관이 개관했다. 개관이후 10년 동안 김만덕기념관은 김만덕의 나눔정신과 도전정신의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문화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김만덕의 나눔과 도전정신을 계승·실천하는 나눔문화공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상적인 문화·교육공간, 김만덕으로 대표되는 제주의 정신과 제주인 그리고 제주문화의 가치를 알리는 관광자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해왔다.



## I. 김만덕기념관 개관

### 1 경과

- 2011 ● 10. 31. 김만덕기념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 2012 ● 4. 23. 건립 부지 확정
- 2013 ● 12. 31. 건립 공사 착공
- 2014 ● 1. 7. 전시 설계 및 제작, 설치공사 착공  
● 4. 25. 전시 자문위원회 구성  
● 12. 31.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2015 ● 3. 2. 김만덕기념관 준공  
● 4. 15. (사)김만덕기념사업회 김만덕기념관 위수탁 운영 협약 체결 (위탁기간: 2015. 4. 15. ~ 2017. 12. 31.)  
● 4. 28. 김상훈 초대 관장 취임  
● 5. 29. 김만덕기념관 개관식 개최

### 2 시설 현황

| 구 분       | 면적(m <sup>2</sup> )                                               | 내용                                                                                |
|-----------|-------------------------------------------------------------------|-----------------------------------------------------------------------------------|
| 소재지(건축면적) | 제주시 산지로 7(연면적 2,902.87m <sup>2</sup> / 부지면적 1,982m <sup>2</sup> ) |                                                                                   |
| 기념관       | 2,888.22                                                          | 지상 3층                                                                             |
| 1층        | 1,064.14                                                          | 만덕홀(202석), 기획전시실, 물품보관실, 대기실, 화장실, 방풍실, 감시제어반실, 분리수거실,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E/V(2개소) 등 |
| 2층        | 896.39                                                            | 체험관, 메모리얼홀, 기획전시실, 공조실, 세미나실, 화장실, E/V 등                                          |
| 3층        | 927.69                                                            | 상설전시실, 휴게실, 휴게홀, 사무실, 자료실, 수장고, 분류실, 통신실, 화장실, E/V 등                              |
| 부속동       | 14.65                                                             | 유류탱크                                                                              |

## II. 자료

### 1

#### 소장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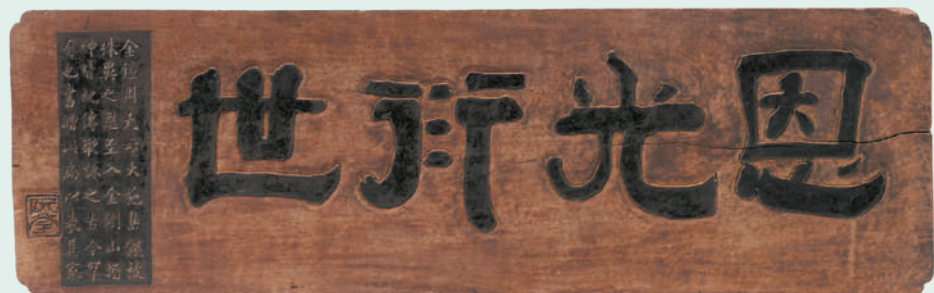
(2024년 12월 기준)

(단위 : 건/점)

| 구분          | 고고·민속 | 고서 등 서적 | 회화·서예 | 사진    |
|-------------|-------|---------|-------|-------|
| 소계          | 52/65 | 19/170  | 20/20 | 57/57 |
| 구입          | 0/0   | 19/170  | 1/1   | 0/0   |
| 기증          | 27/40 | 0/0     | 9/9   | 57/57 |
| 기타*         | 25/25 | 0/0     | 10/10 | 0/0   |
| 총 148건 312점 |       |         |       |       |

\* 사라봉 만덕관 이전 유물, 학술연구에 따른 자체 수집 등

#### 대표 유물



#### 은광연세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지다’, 김만덕 사후 제주에 유배온 추사 김정희가 대기근에 처한 제주도민을 구하기 위해 평생 모은 재산을 내놓은 김만덕이 세상을 떠난 지 30년이 넘도록 칭송받자, 김만덕의 선행을 기려 3대손인 김종주에게 친필로 써 제주왕벚나무에 새겨서 줬다. 2010년 4월 30일 6대손인 김균이 (사)김만덕기념사업회에 기증해, 현재 김만덕기념관에 소장되어 있다.

|                                                      |                                                                                                                              |
|------------------------------------------------------|------------------------------------------------------------------------------------------------------------------------------|
| 金鍾周大母大施島饑被<br>殊異之恩至入金剛山措<br>紳皆紀傳歌詠之古今罕<br>有也書贈此扁以表其家 | 김종주 조모께서 섬이 굶주릴 때 크게 베푸셔서<br>남다른 은혜를 입어 금강산에 들어가기에 이르니<br>사대부들이 기록하여 전하고 노래로 읊은 것은 고금에 드물다<br>이 편액을 써서 주어 그 집에 표한다 (번역: 김익수) |
|------------------------------------------------------|------------------------------------------------------------------------------------------------------------------------------|

### 2

#### 구입 자료

- 2015년 김만덕 관련 자료 및 제주 역사 관련 자료 12건 80점 구입, 예산 5,030만원  
- 김만덕 관련 자료: 번암집(채제공), 고식(김희락), 추재집(조수삼), 운곡집(이희발), 탐라기년(김석익), 제주도지  
- 제주역사 관련 자료: 제주도학, 응와선생문집, 탐라잡영, 제주양씨대족보, 제주양씨파보, 제주양씨족보
- 2016년 김만덕 관련 자료 3건 79점 구입, 예산 3,500만원  
- 증보탐라지(담수계), 금강산진경산수, 여유당전서(정약용)
- 2020년 제주 역사 관련 자료 5건 13점 구입, 예산 1,000만원  
- 삼략직해, 충암집, 동계집, 제주여행안내서, 기묘명현록

### 3

#### 기증 자료

강순자 말총 1건 6점, 양화순 민속자료(술박, 되박, 구덕) 3건 4점, 강만보 옛 제주 사진 57건 57점, 김균 은광연세 1건 1점, 금다화 회화작품 1건 1점, 탁헌주 회화작품 1건 1점, 양상철 서예작품 1건 1점, 정웅표 서예작품 1건 1점, 장세훈 서예작품 1건 1점, 김영선 서예작품 1건 1점, 김부자 민속자료(넋사발, 차룻 등) 22건 29점



### 4

#### 김만덕 관련 내용 수록 교과서

| 연번 | 분류 | 교과서      | 학교   | 출판사  |
|----|----|----------|------|------|
| 1  | 검정 | 사회 3-1   | 초등학교 | 교학사  |
| 2  | 검정 | 사회 4-1   | 초등학교 | 동아출판 |
| 3  | 검정 | 사회 4-1   | 초등학교 | 미래엔  |
| 4  | 검정 | 사회 4-1   | 초등학교 | 지학사  |
| 5  | 검정 | 사회 4-1   | 초등학교 | 천재교육 |
| 6  | 검정 | 사회 4-1   | 초등학교 | 천재교육 |
| 7  | 국정 | 국어 4-2 나 | 초등학교 | 미래엔  |
| 8  | 검정 | 사회 5-2   | 초등학교 | 천재교육 |
| 9  | 국정 | 사회 5-2   | 초등학교 | 지학사  |
| 10 | 검정 | 도덕 1     | 중학교  | 동아출판 |



## 5 보존처리

- 2015년 10월 김만덕 표준영정 보존처리
  - 곰팡이 및 얼룩 발생, 액자 해체 후 얼룩 제거·소독, 영인본 제작
- 2021년 6월 김만덕 전지공예 보존처리
  - 곰팡이 발생, 훈증 및 소독, 전용 보관함 제작



연 2회 수장고 훈증 및 정기적인 보존 약품 관리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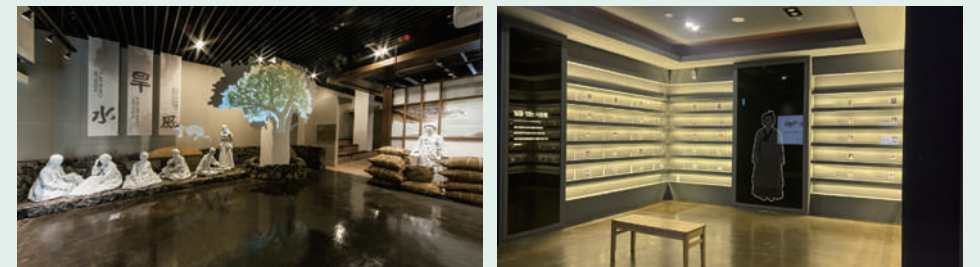
## Ⅲ. 전시

### 1 상설전시

#### 1) 상설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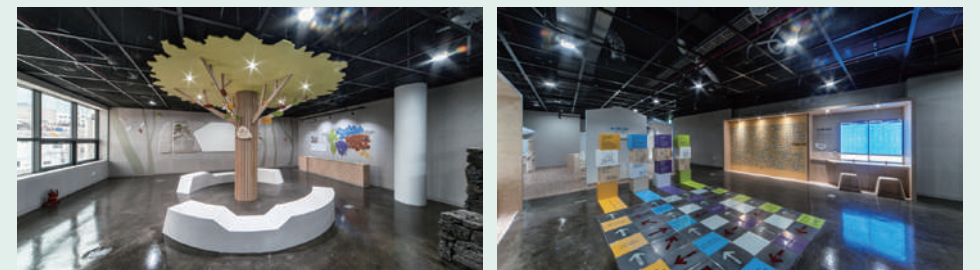
##### • 3층 상설전시실

김만덕의 생애를 통해 김만덕 정신에 대해 설명하고, 김만덕처럼 나눔을 실천한 사람들, 역대 김만덕상 수상자들을 소개하며 도전과 나눔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곳이다.



##### • 2층 나눔실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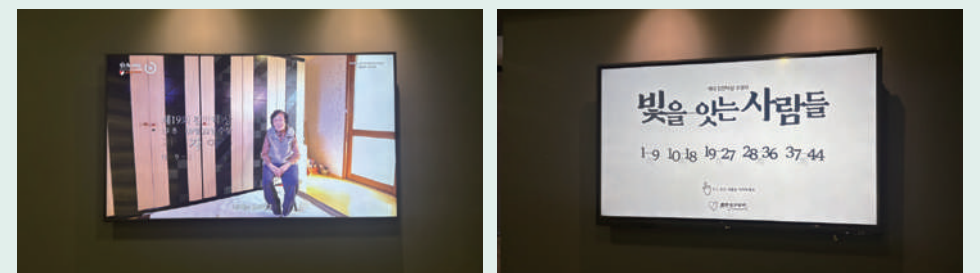
김만덕의 고향, 제주에서 나눔의 의미를 알고, 그 실천방법을 배우고 약속하는 체험관이다.



#### 2) 전시실 개편

김만덕기념관에서는 관람객들에게 보다 정확한 전시 정보와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전시물 및 시설물 등을 꾸준히 보완하고 있다.

- 은광연세 탁본체험 개편, 쌀하트 캡슐 자판기 보수, 무게체험모형 개편, 김만덕상 수상자 아카이브 자료 전시 콘텐츠 개편 등



## 2 기획전시

| 연도   | 전시명                          | 내용                                                                                                             | 전시기간, 관람객                  |
|------|------------------------------|----------------------------------------------------------------------------------------------------------------|----------------------------|
| 2015 | 은혜의 빛을 잇는<br>제주 사람들          | 김만덕기념관이 개관 기념 기획전으로 마련한 강만보 작가 사진전                                                                             | 9.9.~11.30.<br>18,306명     |
| 2016 | 금다화-제주의 빛을 나누다               | 금다화 작가 초대전.<br>김만덕 구휼의 상징인 쌀과 이와 관련된 막사발(밥그릇)을 주제로 한 작품 및 제주자연 관련 작품 40여 점 전시                                  | 1.29.~3.21.<br>5,443명      |
|      | 김만덕기념관 소장유물전                 | 김만덕기념관이 개관하여 수집한 김만덕기록유물 등 122점 전시                                                                             | 5.30.~8.7.<br>13,162명      |
|      | 제주의 숨을 불어 넣다-<br>제주 곳자왓 탁현주展 | 제주 곳자왓을 주제로 한 작품을 통해 만덕의 나눔정신을 떠올려보고 그 의미를 되새겨 보는 전시                                                           | 8.9.~9.18.<br>6,928명       |
|      | 나눔 사랑展                       | 캘리그래피와 예술서에 수강생 작품전                                                                                            | 9.23.~10.2.<br>8,078명      |
|      | 2016<br>탐라순력 제주조점展           | ‘창작공동체 우리’와 공동주최한 기획전.<br>제주역사의 중심에 있는 관덕정과 현재 원도심 개발의 중심 지인 제주성 안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새로운 의미를 찾아보는 전시 | 10.12.~10.31.<br>4,069명    |
|      | 제1회 만덕문화대상<br>나눔공모전 전시       | 제1회 만덕문화대상 나눔공모전 응시작 40여 점, 수상작 17점 전시                                                                         | 11.4.~11.15.<br>4,233명     |
|      | 한·중 서예명가10인展                 | 2015~2016년 한·중 관광의 해를 맞아 김만덕 정신의 세계화와 선진 문화교류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전시회로, 한·중서예가의 작품 70여 점이 전시                          | 12.4.~12.12.<br>1,533명     |
|      | 2016년 연말 기획전시<br>‘은혜의 빛들’    | 경기도 헤이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영미, 한태상 작가와 제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상철 작가가 참여한 3인전                                                    | 12.20.~2017.2.5.<br>3,538명 |
|      | 레오 마티즈 그리고<br>한국전쟁 참전국가 콜롬비아 | 주한콜롬비아대사관, 레오마티즈재단과 공동 주최 전시.<br>콜롬비아의 사진 거장 ‘레오 마티즈’의 작품과 한국전 참전 당시 콜롬비아군의 기록사진을 함께 전시                        | 3.14.~3.30.<br>3,115명      |
|      | 그리움-제주                       | 도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주작가들이 ‘제주’에 대한 애뜻함과 그리움, 추억을 담아낸 작품들을 전시                                                        | 4.4.~4.30.<br>5,701명       |
| 2017 | 미감을 느끼다 섬섬옥수                 | 김만덕기념관 개관 2주년 기획전-이하운 작가 초대전.<br>‘아름다운 (섬) 제주에서 굶주리는 제주도민을 위하여 쌀 (섬)을 아낌없이 나누어 준 김만덕의 아름다운 손길(옥수)’을 기리고자 한 전시회 | 5.10.~6.28.<br>8,445명      |
|      | 제주에 통하다                      | 강명순 작가 초대전. 제주 초가의 원형과 돌담, 한라산, 유채꽃, 바다비경을 주제로 하여 잊혀져가는 제주의 풍광을 담은 30여 점의 작품 전시                                | 9.5.~10.26.<br>20,409명     |
|      | 김만덕기념관 소장유물전                 | 김만덕기념관 소장유물 전시.<br>은광연세(恩光衍世) 편액을 비롯해 김만덕을 기록한 고서와 당시 교역물품을 전시                                                 | 10.22.~10.26.<br>2,021명    |

| 연도   | 전시명                          | 내용                                                                                                                | 전시기간, 관람객                    |
|------|------------------------------|-------------------------------------------------------------------------------------------------------------------|------------------------------|
| 2017 | ‘만덕과 푸른 항아리’<br>원화전          | 김만덕을 재조명하고 만덕의 숨은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한 『만덕과 푸른 항아리』동화책의 원화 17점 전시                                                          | 12.12.~12.24.<br>3,902명      |
|      | ‘제2회 만덕문화대상<br>나눔공모전’ 작품전    | ‘제2회 만덕문화대상 나눔공모전’ 당선작 16점 전시                                                                                     | 12.19.~12.28.<br>2,990명      |
| 2018 | 양중훈의 포토 옴니버스                 | 제주출신 사진작가 양중훈 초대전.<br>산간오지 등에 사는 전 세계 소외된 사람들과 어려운 작업 환경 속에서 생업을 영위해 온 강인한 제주여성의 대표인 제주해녀 등의 작품 50여 점 전시          | 1.2.~2.25.<br>10,515명        |
|      | 이정미·돌·바람·물                   | 제주의 자연환경과 그 속에서 삶을 일군 사람이 주제로, 제주를 상징하는 기호들인 돌, 바람, 물 그리고 사람을 표현한 도예작품 50여 점 전시                                   | 5.2.~6.29.<br>16,791명        |
|      | 빛, 여행 그리고 상상                 | ‘코인맨’의 작가 김일동, 쉼도우블 김은영 작가 초대전.<br>코인맨이 세계 곳곳의 랜드마크를 여행하며 서로 모이고 여행이 끝난 후에는 “코인맨 도네이션 박스”를 통해 관객의 참여(기부)로 이어지는 전시 | 8.9.~9.30.<br>19,914명        |
|      | ‘제3회 만덕문화대상<br>나눔공모전’ 작품전    | 2018 문화강좌인 ‘나만의 손글씨 만들기’에 참여한 수강생들의 캘리그래피 작품과 제3회 만덕문화대상 나눔공모전 응모작 90여 점 전시                                       | 10.20.~11.20.<br>16,319명     |
|      | 흔디 사는 세상                     | 제주 지역 작가 28명이 작품 판매금 일부를 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한 전시회. 제주작가들의 김만덕의 나눔 정신을 예술작품과 활동으로 보여줌.                                 | 12.28.~2019.2.28.<br>13,335명 |
|      | 은혜로 쿨다                       | 한국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공동주관 전시.<br>전 재산을 내놓아 제주민을 품었던 김만덕의 삶을 제주 작가 26명의 작품을 통해 보여주는 전시                                 | 5.22.~6.30.<br>12,941명       |
|      | 백광익:<br>오름 위에 부는 바람          | 제주토박이 백광익 화백 초대전.<br>제주도민을 구휼했던 김만덕의 넓은 마음을 닮은 오름을 주제로, 제주의 문화적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작품 전시                                 | 8.6.~10.6.<br>19,836명        |
| 2019 | 제3회 김만덕주간<br>시민참여전시          | 만덕학교 도민문화강좌 프로그램 수강생 작품 및 나눔교육프로그램 수강생 작품 전시                                                                      | 10.19~11.19.<br>16,630명      |
|      | ‘제4회 만덕문화대상<br>나눔디자인공모전’ 작품전 | 제4회 만덕대상 나눔디자인공모전 수상작 18점 전시                                                                                      | 12.3.~12.14.<br>4,389명       |
|      | 우리 집에 그림 하나                  | 작품 전시와 더불어 작품 판매, 판매금의 일부는 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됨으로써 김만덕의 나눔정신이 실천으로 이어지는 전시                                            | 12.20.~2020.2.28.<br>8,718명  |
| 2020 | ‘걸어, 봄’                      | 제주청년작가 기획전으로, 평균 25세 청년작가 10인의 실험정신과 도전을 보여주는 작품 전시                                                               | 5.8~6.28.<br>408명            |
|      | ‘포옹-한라산과 이어도를<br>꿈꾸다’        | 개관 5주년 특별전으로 개최된 채기선 작가 초대전시회.<br>채기선의 작품 30여 점 전시. 한라산과 김만덕의 따뜻함과 위로, 포옹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김만덕의 정신을 되새겨 보는 전시.         | 8.8.~10.25.<br>1,977명        |



| 연도   | 전시명                      | 내용                                                                                                                                                                                                | 전시기간, 관람객                   |
|------|--------------------------|---------------------------------------------------------------------------------------------------------------------------------------------------------------------------------------------------|-----------------------------|
| 2020 | ‘김만덕, 그녀의 삶과 정신’         | 제4회 김만덕 주간 기념관 소장 자료전.<br>김만덕 국가표준영정, 은광연세(恩光衍世) 편액, 김만덕 묘비문 탁본자료 원본이 공개되며 중국 섬서성의 비물질문화유산인 양홍화(楊紅霞) 여사의 김만덕 영정과 전지공예작품, 중국 왕예(王睿)의 김만덕 영정 모사도, 중국 종적(鍾鐙)의 은광연세(恩光衍世) 필사작 등 중국 저명 화가 및 서예가의 작품 전시 | 10.28.~12.5.<br>3,045명      |
|      | ‘일상에 예술을 담다’             | 2020 나눔 작은 그림 전시회로, 청년작가부터 원로작가까지 50명 작가의 작품 80여 점 전시함. 작품 판매금의 일부는 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함으로써 김만덕의 나눔정신을 실천함                                                                                            | 12.18.~2021.2.28.<br>1,834명 |
| 2021 | ‘기억, 그리고 인연’             | 신년기획전으로 김만덕기념관에 기증된 유물과 작품, 김만덕기념관의 기록을 담은 기록물 전시를 통해 그동안 기념관이 걸어온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전시                                                                                                                  | 3.10.~6.30.<br>4,304명       |
|      | ‘제주에 살다’                 | 제주 작가 양상철 기획초대전. 영주심경을 비롯해, 제주를 담은 글과 그림 작업을 하고 있는 제주의 ‘융합서예술가’ 양상철 작가의 작업을 보여주는 전시                                                                                                               | 8.10.~9.25.<br>1,651명       |
|      | ‘한라산 붉은 겨우살이 -나눔 그리고 공존’ | 정상기 작가 기획초대전.<br>제주의 상징인 한라산에서 한겨울 추위 속에도 서로 돕고 상생하며 살아가는 붉은겨우살이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은 정상기 작가의 작업을 보여주는 전시                                                                                                 | 10.5.~11.5.<br>1,828명       |
|      | ‘따뜻한 마음 ÷’               | 2021 나눔 작은 그림전에는 제주, 혹은 김만덕기념관과 인연을 맺은 작가 44명이 참여함. 출판작 70여 점 중 판매작품 일부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기부되어 훈훈한 감동을 제공함                                                                                             | 12.23.~2022.2.25.<br>3,865명 |
| 2022 | 조의학환의 제주 사진 ‘땃디 땃겨왔수다’   | 제주에 이주한 조의학환 작가의 사진전.<br>작가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제주도 농사를 관찰하며 경배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사진 70여 점과 제주스케치 30여 점 등 전시                                                                                                | 3.3.~4.9.<br>1,809명         |
|      | 이기조 달항아리 ‘제주를 담다, 닦다’    | 김만덕기념관 개관 7주년 기념 기획초대전. 조선 백자의 미감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구현하고 있는 제주 출신 도예가 이기조의 작품 22점 전시                                                                                                                    | 5.26.~7.29.<br>5,098명       |
|      | 전이수 작가 초대전 ‘소중한 사람에게’    | 열다섯 소년작가 전이수 초대전. 가족에 대한 사랑과 작가가 바라본 세상에 대한 생각을 담아 가족과 자연의 소중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작품 25점 전시                                                                                                              | 9.20.~10.28.<br>7,462명      |
|      | 그림의 온도                   | 제주 작가들의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응원하고 전시가 기부로 이어지는 나눔전으로 24명의 작가 작품 36점 전시                                                                                                                                      | 12.15.~2023.2.24.<br>6,233명 |
|      | 청년작가전 ‘Spring, Spring!’  | 봄날(spring)의 생기를 담고 용수철(spring)과 같이 힘차게 뛰어오르는 청년작가들을 응원하는 전시.                                                                                                                                      | 3.24.~6.23.<br>1,809명       |
| 2023 | 산지천: 기억을 걷다              | 김만덕기념관 개관 8주년 기념 특별기획사진전.<br>산지천과 그 주변의 변천사 사진,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기억(인터뷰) 전시. 사진예술공간 ‘큰바다영’ 공동기획,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국립제주박물관, 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문화원, 제주학연구센터, 사진예술공간 큰바다영, 서재철 작가자료 제공                            | 7.21.~10.31.<br>5,098명      |

| 연도   | 전시명                  | 내용                                                                                                                          | 전시기간, 관람객                   |
|------|----------------------|-----------------------------------------------------------------------------------------------------------------------------|-----------------------------|
| 2023 | 모두가 행복한 나눔           | 2023년 김만덕기념관에서 진행한 <2023 만덕문화대상 나눔공모전> 수상작 35점과 <김만덕 나눔봉사학교 나눔 가족봉사단> 활동 내용 전시                                              | 12.15.~2024.1.31.<br>7,462명 |
| 2024 | 산지천: 포구, 항구가 되다      | 조선시대 김만덕이 장사를 하던 산지천 하류의 건입포부터 일제강점기 산지항 개발의 역사, 제주의 관문으로 거듭난 제주항의 오늘날까지 다양한 모습을 담은 기획전시회임                                  | 5.29.~8.31.<br>4,338명       |
|      | 여성 인물 추모제 지역사례 공유 전시 | 김만덕을 기리는 만덕제를 포함해, ‘신사임당 추모제’(강릉), ‘동도명기 홍도 최계옥 추모예술제’(경주), ‘임윤지당 일 선양 헌다례’(원주), ‘의암별제’(진주) 등 추모제 형태에 대한 각 지역 사례를 소개하는 기획전시 | 10.20.~12.31.               |

### 3 대관전시

| 연도   | 전시명                     | 내용                                                                                                                                | 관람객                     |
|------|-------------------------|-----------------------------------------------------------------------------------------------------------------------------------|-------------------------|
| 2016 | 2016 역사문화가 숨쉬는 기상기후 사진전 | 기상청 대관 전시로, 2016년 기상청 사진공모 입상작 총 49점 전시. 작품전시외 기후변화 홍보관 및 기상역사존도 운영함                                                              | 3.23.~5.1.<br>6,087명    |
|      | 사랑앓 사진전                 |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대관 전시.<br>가정의 달 5월과 ‘사랑(愛) 사진공모전’ 10주년을 맞아 마련됨. 역대 수상작과 2016년 수상작 등 ‘사랑’을 주제로 한 사진 60여 점이 선보임                          | 5.6.~5.19.<br>2,671명    |
|      | 살림하는 붓질 展               | 2016 제주특별자치도의 양성평등주간 기념 행사의 하나로 개최된 제주여성작가 전시회. 제주여성작가 18인이 양성평등을 주제로 제주여성의 삶을 재조명함                                               | 7.1.~7.30.<br>5,067명    |
|      | 문화플랫폼사업 수강생 전시          | 제주문화원 문화플랫폼사업 수강생 대관전시.<br>제주시에서 활동 중인 소규모 문화예술 동아리 및 문화예술단체에서 작품을 발표함                                                            | 11.20.~11.24.<br>944명   |
|      | 문화학교 수료생 작품전            | 제주문화원 제22기 문화학교 수료생 작품전.<br>서예, 사진, 한국화, 서양화교실 등의 작품 100여 점 전시                                                                    | 11.25.~11.30.<br>1,227명 |
|      | 아름다운 제주 쉬어가기            | 제주도민으로 구성된 회화동호회 동호인전시회                                                                                                           | 2.13.~2.23.<br>1,720명   |
| 2017 | 살림하는 붓질 2 展 ‘집; 짓다’     | 2017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주간 전시회로, 제주 여성의 성평등한 삶을 예술로 공감하고 나누는 전시                                                                          | 7.1.~7.31.<br>299명      |
|      | 기상기후 사진전                | 제주기상청 대관 전시로, ‘사진으로 보는 날씨 이야기’라는 주제로 공모한 2017년 기상청 사진공모 입상작 총 30점 전시. 또 출품자의 소중한 사연이나 특별한 이야기를 담은 스토리 사진 5점, 대표 계절 기상사진 5점 등도 선보임 | 8.3.~8.27.<br>5,315명    |

| 연도   | 전시명                   | 내용                                                                                                                                     | 관람객                     |
|------|-----------------------|----------------------------------------------------------------------------------------------------------------------------------------|-------------------------|
| 2017 | 제주문화원<br>문화학교 작품전     | 제주문화원 제23기 문화학교 수료생 작품전.<br>서예, 사진, 한국화, 서양화교실 등의 작품 100여 점 전시                                                                         | 11.28.~12.5.<br>2,701명  |
|      | 제주문화원<br>문화플랫폼 작품전    | 제주문화원 대관 전시로, 문화예술플랫폼 사업에 선정된 문<br>화예술 동아리 및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작품전임                                                                            | 12.6.~12.12.<br>2,195명  |
| 2018 | 기상기후 사진전              | 제주기상청 대관 전시로, 세계 기상의 날(3월 23일) 기념<br>해 마련된 2018년 기상청 기상기후사진 공모전 입상작 30<br>점 등 전시                                                       | 3.22.~4.15.<br>6,949명   |
|      | 살림하는 붓질 3展<br>‘살림·살이’ | 2018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주간 전시기념 세 번째 제주<br>여성작가 작품전.<br>여성미술가들의 시선으로 ‘제주여성의 삶’ 그 가치를 함께 공<br>유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자는 취지를 담고 있음                | 7.1.~7.31.<br>6,357명    |
|      | 제주문화원<br>문화학교 작품전     | 제주문화원 제24기 문화학교 수료생 작품전.<br>서예, 사진, 한국화, 서양화교실 등의 작품 전시                                                                                | 11.22.~11.29.<br>2,214명 |
|      | 제주문화원<br>문화플랫폼 작품전    | 제주문화원 대관전시<br>제주시 관내 거주 및 활동 중인 소규모 문화예술 동아리 및 문<br>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문화플랫폼 사업 작품 전시                                                         | 12.6.~12.12.<br>2,478명  |
| 2019 | 해봄                    | 제주도민으로 구성된 수채화 동호회 대관전시                                                                                                                | 3.5.~4.7.<br>8,778명     |
|      | 기상기후 사진전              | 제주기상청 대관 전시로, 2019년 기상청 기상기후사진 공<br>모전 입상작 30점 등 다양한 작품 전시                                                                             | 4.8.~5.11.<br>8,426명    |
|      | Marc Verin 사진전        | 프랑스 사진작가 마크 버랭(Marc Verin) 사진전.<br>독재 체제, 학살, 공산주의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북한과<br>코카서스의 일상 생활을 담은 사진 전시                                           | 5.14.~5.19.<br>2,043명   |
|      | 살림하는 붓질4展<br>‘낮 - 삶’  | 2019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주간 전시회로 여성주의 시<br>선으로 다양한 작품활동을 하는 10명 작가의 작품을 선보임.<br>여성의 몸, 여성의 노동력을 통한 여성의 정체성을 사하는 어<br>떻게 기억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담은 전시 | 7.3.~7.16.<br>3,347명    |
|      | 김재춘의 민화세계             | 전통민화의 고유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현대적인 작품을 그려<br>온 김재춘 작가 전시. 궁중 회화와 용그림 등 민화병풍 9점,<br>액자 28점 등 총 37점 전시                                             | 10.7.~10.11.<br>5,239명  |
|      | 제주문화원<br>문화플랫폼 작품전    | 제주문화원 문화플랫폼사업 작품전으로, 제주시 관내 거주<br>및 활동 중인 소규모 문화예술 동아리 및 문화예술단체의 작<br>품을 전시함                                                           | 10.12.~10.16.<br>5,817명 |
|      | 제주문화원<br>문화학교 작품전     | 제주문화원 제25기 문화학교 수료생 작품전.<br>서예, 사진, 한국화, 서양화교실 등의 작품 전시                                                                                | 11.22.~11.29.<br>2,534명 |
| 2020 | ‘恩光衍世’                | 제주문화예술재단 공모사업에 선정된 독한예술협회 회원<br>12명의 작품전.<br>‘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지다’ 라는 주제로 김만덕의 정신<br>을 담은 작품 전시                                           | 12.7.~12.13.<br>8,718명  |

| 연도   | 전시명                      | 내용                                                                                                                                                                                                                                                                            | 관람객                     |
|------|--------------------------|-------------------------------------------------------------------------------------------------------------------------------------------------------------------------------------------------------------------------------------------------------------------------------|-------------------------|
| 2021 | ‘제주를 품은 작가를 만나다’         | 제1회 제주도문화원의 날 초청전시회.<br>서예, 서양화, 한국화, 공예 분야에서 제주를 대표하는 작가<br>들이 출품한 30여점의 작품 전시                                                                                                                                                                                               | 9.28.~10.2.<br>363명     |
|      | ‘치유의 정원-<br>바다를 건너는 나비’  | 제주문화예술재단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미선 작가 개인전.<br>1000km를 날아 대장정 하는 제주왕나비에 영감을 얻어 탄<br>생한 ‘나비 시리즈’, 건강과 행복을 석탑에 염원하는 ‘기원’,<br>법정스님의 나무 의자에 영적 고요의 기운을 담아낸 ‘맑고 향<br>기롭게’ 등 신작 25점 전시                                                                                                           | 11.9.~11.16.<br>499명    |
|      | 제주문화원<br>제27기 문화학교 전시회   | 제주문화원 대관 전시로, 제27기 문화학교 수료생 작품전                                                                                                                                                                                                                                               | 11.19.~11.25.<br>820명   |
| 2022 | 호랑이와 용 백마리,<br>궁중회화 이야기  | 대한민국 궁중화 명장 김재춘 전국 순회전시.<br>임인년 호랑이 해를 맞아 복을 부르는 꿈과 매혹의 민화를 널<br>리 알리기 위해 호랑이와 용 100마리, 책걸이, 군선도, 금강<br>산 등 30여 점 전시                                                                                                                                                          | 5.4.~5.13.<br>625명      |
|      | 제주기상청<br>기상기후사진전         | 신비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기상현상을 담은 기<br>상기후사진 공모전 입상작 30점 전시                                                                                                                                                                                                                       | 8.4.~8.18.<br>1,132명    |
|      | 제주를 품은 작가를 만나다<br>2-제주풍경 | 제주도문화원연합회 대관, 문화원의 날 기념 전시.<br>제주에서 활동하는 10명의 작가의 제주 상징 주제 작품 30<br>점 전시                                                                                                                                                                                                      | 9.1.~9.11.<br>703명      |
|      | 제10회 그리메 화화전             | 미술동호회 ‘그리메창작미술연구회’ 대관전시.<br>제주의 풍경을 담은 다양한 화풍의 작품 40점 전시                                                                                                                                                                                                                      | 11.11.~11.22.<br>1,388명 |
| 2023 | 드로잉마실,<br>제주를 그리다        | 점차 사라져가는 제주의 옛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을 펜드로잉<br>으로 기록한 동호회의 소품 50여점 전시                                                                                                                                                                                                                     | 6.27.~7.11.<br>625명     |
|      | 박정우 제4회 개인전<br>‘제주의 멋’   | 뇌병변 장애를 극복한 사진가 박정우 네번째 개인전.<br>아름다운 제주의 주상절리와 오름 등을 소개하는 사진 25점<br>전시                                                                                                                                                                                                        | 11.1.~11.7.<br>1,132명   |
|      | 따뜻한 작별 그리고 기억            | 세계 자살 유족의 날(11.18)을 맞아 소중한 사람을 자살로<br>잃은 유족을 이해하고 그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마련된<br>2022~2023 ‘따뜻한 작별 그리고 기억’ 공모전 출품작 전시                                                                                                                                                                | 11.16.~11.18.<br>703명   |
| 2024 | 제주문화유산답사회<br>30주년 기념 사진전 | 제주에서 사라지거나 모양이 달라진 문화재 사진을 전시함                                                                                                                                                                                                                                                | 2.18.~2.24.<br>1,143명   |
|      | 조무준 할머니 꽃동산              | 조무준 할머니가 생전에 그린 꽃과 나비와 벌, 자연을 소재로<br>한 작품을 전시함                                                                                                                                                                                                                                | 3.8.~4.16<br>4,676명     |
|      | 탐라전람                     | 제63회 탐라문화제 예술문화축제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전<br>시회. 제주 기메, 제주신화 주제 작품전과 자카르타 공예작품<br>의 선보임.<br>- <바람에 빌엄수다> : 제주기메 주제의 사진 및 해설 전시<br>- <제주신화 책놀이 도서관> : 어린이 대상 제주신화 도서<br>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br>- <제주-자카르타 섬을 잇다, 어느 여행자의 방> : UCLG<br>ASPAC 문화분과위원회 문화교류사업으로 제주의 해양<br>문화와 인도네시아의 바틱 공예 주제의 체험전시 | 10.5.~10.9.<br>3,423명   |



IV. 학술연구

| 연도   | 내용                                                                                                                                                                                                                                                                                                                                    |
|------|---------------------------------------------------------------------------------------------------------------------------------------------------------------------------------------------------------------------------------------------------------------------------------------------------------------------------------------|
| 2015 | 개관기념 학술세미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현황과 과제’                                                                                                                                                                                                                                                                                                    |
| 2016 | 학술세미나 ‘김만덕의 브랜드 자산화와 마케팅 전략’<br>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스토리북 ‘나눔의 삶을 따라’, ‘은광연세’ 2종 발간                                                                                                                                                                                                                                                       |
| 2017 | 『만덕과 푸른 향아리』그림책 발간                                                                                                                                                                                                                                                                                                                    |
| 2018 | 『허운데기』동화책 발간                                                                                                                                                                                                                                                                                                                          |
| 2019 | 학술세미나 ‘18세기 조선사회와 김만덕’                                                                                                                                                                                                                                                                                                                |
| 2020 | 김만덕 출생지 관련 조사 연구<br>- 사료 및 관련자 인터뷰를 통해 출생지(제주성내 추정) 정립. 연구용역결과보고서 발간                                                                                                                                                                                                                                                                  |
| 2021 | 김만덕 관련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br>- 김만덕의 다양한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발굴하고 아카이빙화 할 수 있도록 기초 조사. 연구용역결과보고서 ‘김만덕 관련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발간, 전국 배포                                                                                                                                                                                                       |
| 2022 | 김만덕상 수상자 자료 아카이브 및 영상 제작<br>- 김만덕상 수상자 자료 아카이브 및 영상 콘텐츠 제작. 故고수선, 진춘자 수상자 영상 2편 제작                                                                                                                                                                                                                                                    |
| 2023 | 김만덕상 수상자 자료 아카이브 및 영상 제작<br>- 김만덕상 수상자 자료 아카이브 및 영상 콘텐츠 제작<br>- 2회 故고혜영, 3회 故이창욱, 4회 故조금숙, 5회 故이옥이, 6회 故김서옥, 20회 양화순, 25회 고추월 총 7명 아카이브, 7종 21편 제작<br><br>제18회 제주포럼 ‘김만덕국제상’ 제정 공론화를 위한 세션 운영<br>- ‘나눔과 평화, 김만덕국제상 제정을 통한 국제적협력과 연대’<br>: 기조발표 고두심, 발표 Freda Miriklis, 좌장 예종석, 토론 양원찬·양영철·송경애<br>- 김만덕국제상 제정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계기가 됨 |
| 2024 | 김만덕상 수상자 자료 아카이브<br>- 김만덕상 수상자 자료 아카이브 및 영상 콘텐츠 제작<br>: 7회 故성귀랑, 8회 故고춘옥, 9회 故김경생, 10회 故오태인 총 4명 아카이브, 4종 12편 제작<br><br>김만덕국제상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br>- 주제발표 예종석·정호기, 좌장 문순덕, 토론 김석윤·오수용·진선희·고순정<br>- 김만덕국제상의 시상 및 운영주체와 후보자 심사방법, 수상대상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                                                                              |

V. 교육 및 행사프로그램

1 교육

| 연도   | 내용                                                                                                                                                                                                                                                                                                      |
|------|---------------------------------------------------------------------------------------------------------------------------------------------------------------------------------------------------------------------------------------------------------------------------------------------------------|
| 2015 | 위스타트와 함께 하는 김만덕나눔 캠프<br>- 구리시의 저소득층 가정 아동 25명을 2박 3일 동안 제주도로 초청해 나눔 캠프를 진행하며 오름 플로깅 및 영양원 봉사활동: 9.10.~12.<br><br>제주문화답사 프로그램<br>- ‘조선 사회 속의 김만덕’ 1,2차 80명 참가(10.19./ 10.31.)<br>- ‘비(碑) 속의 여인들’ 1,2차 68명 참가(11.14./ 11.21.)                                                                             |
| 2016 | 캘리그래피와 예술서예<br>- 캘리그래피뿐 아니라 서예의 심미성을 더한 현대적인 서예 강좌<br>: 3.23.~9.7. <24회, 수강생 13명><br><br>신(新) 김만덕 객주<br>- 제주시청소년수련관 연계 진행,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 대상 나눔 체험 교육 진행<br>: 6.11./ 6.24./ 9.28./ 11.19. <4회, 총 160여명 참여>                                                                                               |
| 2017 | 신(新) 김만덕 객주<br>- 제주시청소년수련관 연계 진행,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 대상 나눔 체험 교육 진행<br>: 6.3./ 6.17./ 11.4./ 12.2. <4회, 총 160명><br><br>찾아가는 김만덕기념관<br>- 김만덕기념관을 찾아오기 힘든 시외지역 유치원·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김만덕의 생애와 정신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4.26./ 5.31./ 6.28./ 7.20./ 9.27./ 10.25./ 11.29. <7회, 총 420명>                                       |
|      | 나눔탐험대<br>•엄마아빠와 함께하는 나눔문화탐험대-가족: 32회 <총 559명><br>•김만덕과 함께하는 나눔문화탐험대-청소년: 25회 <총 1,061명><br>•김만덕과 함께하는 실버나눔교실-노인: 32회 <총 1,113명>                                                                                                                                                                         |
| 2018 | 신(新) 김만덕 객주<br>- 제주시청소년수련관 연계 진행,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 대상 나눔 체험 교육 진행<br>: 4.25./ 5.30./ 6.28./ 7.25./ 8.29./ 9.19./ 10.31./ 11.28. <5회, 총 150명><br><br>찾아가는 김만덕기념관<br>- 김만덕기념관을 찾아오기 힘든 시외지역 유치원·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김만덕의 생애와 정신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4.25./ 5.30./ 6.28./ 7.25./ 8.29./ 9.19./ 10.31./ 11.28. <8회, 총 339명> |

| 연도   | 내용                                                                                                                                                                                                                                                                                                                                                                                                                                                                                                                                                                                                                                                                                                                                                                                                                |
|------|-------------------------------------------------------------------------------------------------------------------------------------------------------------------------------------------------------------------------------------------------------------------------------------------------------------------------------------------------------------------------------------------------------------------------------------------------------------------------------------------------------------------------------------------------------------------------------------------------------------------------------------------------------------------------------------------------------------------------------------------------------------------------------------------------------------------|
| 2018 | <b>나눔 문화탐험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 나눔교육 가족 8회 &lt;총 141명&gt;</li> <li>•김만덕과 함께하는 나눔문화탐험대: 청소년 5회 &lt;총 158명&gt;</li> <li>•유아 나눔교육: 유아 26회 &lt;총 641명&gt;</li> <li>•수험생 나눔교육: 청소년 2회 &lt;총 287명&gt;</li> <li>•청소년 나눔교육/봉사활동프로그램: 청소년 6회 &lt;총 12명&gt;</li> <li>•김만덕과 함께하는 실버나눔교실: 노인 55회 &lt;총 1,851명&gt;</li> </ul>                                                                                                                                                                                                                                                                                                                                                                                                                                                                       |
| 2019 | <b>도민 문화강좌 프로그램 &lt;만덕학교&g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만덕 정신과 접목한 도민 참여 취미, 교양 프로그램 운영<br/>- 1기: 3.12.~5.4. 40회, 512명      - 2기: 6.4.~7.27. 40회, 472명</li> </ul> <b>신(新) 김만덕 객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시청소년수련관 연계 진행,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 대상 나눔 체험 교육 진행: 5.7./5.24. 총 2회 74명</li> </ul> <b>NH농협과 함께하는 만덕학교 어린이 경제교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 대상 경제 교실: 8.7.~8.9. 1회 90명</li> </ul> <b>김만덕기념관 나눔교육 사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 나눔교육 프로그램 운영: 10회 &lt;총 198명&gt;</li> <li>•김만덕과 함께하는 나눔문화탐험대: 청소년 1회 &lt;총 18명&gt;</li> <li>•유아 나눔교육: 유아 298회 &lt;총 6,874명&gt;</li> <li>•유아 나눔교육: 유아 256회 &lt;총 7,090명&gt;</li> <li>•수험생 나눔교육: 청소년 12회 &lt;총 1,605명&gt;</li> <li>•청소년 나눔교육/봉사활동프로그램: 청소년 7회 &lt;총 63명&gt;</li> </ul> |
| 2020 | <b>비대면 나눔교육 교재 『행복한 나눔생활』 책자 및 동영상 제작</b>                                                                                                                                                                                                                                                                                                                                                                                                                                                                                                                                                                                                                                                                                                                                                                         |
|      | <b>김만덕기념관 나눔교육 사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아 나눔교육: 유아 152회 &lt;총 2,671명&gt;</li> <li>•비대면 나눔교육(어린이 만덕 나눔학교): 6-9세 어린이 3회 &lt;총 115명&gt;</li> <li>•청소년 만덕 나눔학교: 초등생 1-4학년 16회 &lt;총 60명&gt;</li> </ul>                                                                                                                                                                                                                                                                                                                                                                                                                                                                                                                                                                                         |
| 2021 | <b>김만덕기념관과 함께하는 여성 경제인 경제교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경제인 대상, ‘고령화 사회와 재무 설계’ 교육: 12. 24.</li> </ul>                                                                                                                                                                                                                                                                                                                                                                                                                                                                                                                                                                                                                                                                                         |
| 2022 | <b>김만덕기념관 여성 경제인 교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경제인 대상, ‘전환기 시대, 제주 여성은 어떻게 살고 있나?’ 교육: 12.17.</li> </ul> <b>김만덕기념관 비대면 교육프로그램 &lt;온라인 어린이 만덕 나눔학교&g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을 활용하여 전국 미취학 아동,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나눔 교육프로그램 운영: 12.6.~15.</li> </ul>                                                                                                                                                                                                                                                                                                                                                                                                                                                                                                                      |
| 2023 | <b>상설교육프로그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교육. 총 38회 230명 참여</li> </ul> <b>만덕어린이나눔학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취학 아동을 대상 나눔교육. 총 52회 진행, 38개 기관 1,513명 참여</li> </ul>                                                                                                                                                                                                                                                                                                                                                                                                                                                                                                                                                                                        |
| 2024 | <b>만덕학교-토요일은 김만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 및 가족 대상 상설교육: 총 33회, 161명 참여</li> <li>- 매월 마지막 토요일 전 연령대 도민 대상 체험프로그램: 총 8회, 232명 참여(12. 20. 기준)</li> </ul> <b>찾아가는 김만덕기념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취학 아동, 초등학교 3~4학년 대상 김만덕 및 나눔교육: 총 72회 진행, 25개 기관 1,626명 참여</li> </ul>                                                                                                                                                                                                                                                                                                                                                                                                                                                                                                |

## 2 김만덕주간

| 연도   | 사업명            | 내용                                                                                                                     |
|------|----------------|------------------------------------------------------------------------------------------------------------------------|
| 2016 | 제1회 김만덕 나눔 큰잔치 | 나눔과 기부를 주제로 도민과 참여자들이 함께 호흡하고 기부에 직접 참여하는 축제. 기념관 앞 광장에서 진행                                                            |
| 2017 | 제1회 김만덕주간      | 제38회 만덕제 및 김만덕상 시상식, 제2회 김만덕 나눔큰잔치 진행                                                                                  |
| 2018 | 제2회 김만덕주간      | 제39회 만덕제 및 김만덕상 시상식, 김만덕 나눔큰잔치, 투게더만덕, 도르라만덕, 사랑의 나눔교실, 나눔데이 등 주간행사                                                    |
| 2019 | 제3회 김만덕주간      | 제40회 만덕제 및 김만덕상 시상식, 나눔큰잔치, 김만덕유적탐방, 어린이사생대회, 박지윤 나눔특강, 나눔데이 등 주간행사                                                    |
| 2020 | 제4회 김만덕주간      | 제41회 만덕제 봉행 및 김만덕상 시상식, 비대면 온라인프로그램(슬기로운 나눔생활, 나누미 챌린지), 나눔데이 등 주간행사                                                   |
| 2021 | 제5회 김만덕주간      | 제42회 만덕제 봉행 및 김만덕상 시상식, 온·오프라인 프로그램(마음나눔 캠페인, C원한 도서나눔, 더블N챌린지, 만덕주머니-209, 도전 만덕벨, 온라인콘서트), 나눔데이 등 주간행사                |
| 2022 | 제6회 김만덕주간      | 제43회 만덕제 봉행 및 김만덕상 시상식, 나눔큰잔치(TV 및 유튜브 생중계), 만덕주머니 2022, 도전!만덕벨, 기부트레킹, 역사탐방 버스타고GOGO, 김만덕 기억공모전, 나눔데이 등               |
| 2023 | 제7회 김만덕주간      | 제44회 만덕제 봉행 및 김만덕상 시상식, 김만덕 나눔큰잔치, 배우 문희경과 나눔올레 걷기, 김만덕 나눔 나이트런, 김만덕 역사탐방 버스타고 GOGO 등 주간행사, 김만덕주간 공동 나눔사업 업무협약 및 사업 시행 |
| 2024 | 제8회 김만덕주간      | 제45회 만덕제 봉행 및 김만덕상 시상식, 김만덕 나눔큰잔치, 여성인물 추모제 지역사례 발표회, 청소년 창업 아카데미, 올레 만덕산책 등 주간행사                                      |

## 3 만덕봉사단

| 연도   | 내용                                                        |
|------|-----------------------------------------------------------|
| 2016 | 만덕봉사단 제주대학교 대학생들로 구성, 월 1회 도내 사회복지시설 연인원 200명 봉사활동        |
| 2017 | 만덕봉사단 제주대학교 총여학생회와 협력해 월 1회 총 10회 도내 연인원 200명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
| 2018 | 만덕봉사단 제주대학교 총여학생회와 협력해 월 1회 총 10회 도내 연인원 200명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
| 2019 | 만덕봉사단 도내 중·고등학생으로 구성, 월 1회 총 10회 도내 연인원 150명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
| 2020 | 코로나 19 감염 우려로 사회복지기관 대면봉사가 어려워 봉사단 미운영                    |
| 2021 | 코로나 19 감염 우려로 사회복지기관 대면봉사가 어려워 봉사단 미운영                    |
| 2022 | 코로나 19 감염 우려로 사회복지기관 대면봉사가 어려워 봉사단 미운영                    |
| 2023 | 나눔봉사학교-나눔가족봉사단 도내 14가족 40명으로 구성 총 10회 봉사활동 운영             |
| 2024 | 나눔봉사학교-만덕서포터즈 44명으로 구성, 도서나눔 및 플로깅 등 총 30회 597시간 봉사활동     |



4 문화행사

| 연도   | 내용                                                                                                                                                                                                                                                                                                                                                                                                                                                                                                                                                                                                                                                               |
|------|------------------------------------------------------------------------------------------------------------------------------------------------------------------------------------------------------------------------------------------------------------------------------------------------------------------------------------------------------------------------------------------------------------------------------------------------------------------------------------------------------------------------------------------------------------------------------------------------------------------------------------------------------------------|
| 2015 | 송년자선음악회 박지혜 ‘은혜의 빛을 나누다’ (12.10. / 제주아트센터 / 1,000여 명 관람)<br>- 피아니스트 박지혜 초청 콘서트                                                                                                                                                                                                                                                                                                                                                                                                                                                                                                                                                                                   |
| 2016 | 코리아솔로이츠오케스트라 초청 김만덕 나눔콘서트 (12.14. / 제주문예회관 / 800여 명 관람)<br><br>만덕문화대상 나눔공모전 (공모 6.8.~11.15.)<br>- 청소년 및 성인 대상 공모 시행, 도지사 및 교육감상 시상<br>- 김만덕 나눔 큰잔치 개막식 시상식 진행, 총 수상작 17점<br><br>손미나 나눔특강 <당신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2. 27.)<br>- 강연자: 손미나(전 KBS아나운서, 현 여행작가, 손미나엔컴퍼니 대표)<br>- 자신의 한계를 만들기 보다는 도전을 통해 자신의 삶을 업그레이드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자신만의 노하우 강연<br><br>박시백 나눔특강 <조선 후기의 주요 왕들> (4. 23.)<br>- 강연자: 박시백(만화가,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작가)<br>- 실록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선 시대의 생활상과 김만덕이 살았던 영·정조에 대해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당시의 시대상과 김만덕, 구휼에 대한 이해 제고<br><br>최태성 나눔특강 <조선 후기 경제와 김만덕> (8. 13.)<br>- 강연자 : 최태성(EBSi 한국사강사)<br>- 한국사의 흐름 속에서 김만덕이 활동했던 정조시대의 경제·사회적 배경 소개                                   |
| 2017 | 제2회 만덕문화대상 나눔공모전 (공모 11.20.~12.8. / 시상 12.2.0)<br>- 전국 학생 및 일반인 대상 나눔·봉사·희생과 관련된 사진 공모<br>- 일반부 97점, 학생부 63점 접수, 총 수상 16점<br><br>김만덕 나눔 콘서트 (12.13. / 제주문예회관 / 500여 명 참가)<br>- 국내 최정상급 성악가를 초청해 베트남 빈프만덕중학교와 칸호아제주초등학교의 지원사업기금 마련을 위한 콘서트 진행<br><br>이지선 나눔특강 <삶은 선물입니다> (2.4.)<br>- 강연자: 이지선(대학교수, 『지선아 사랑해』 저자)<br>- 한계에 굴복하기보다는 도전을 통해 풍요로운 삶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의<br><br>고현주 나눔특강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소통 ‘꿈꾸는 카메라’> (6.9.)<br>- 강연자: 고현주(사진작가, 『꿈꾸는 카메라』 저자)<br>- 5년 여 동안 소년원의 아이들과 함께한 사진 수업 이야기를 공유하는 북콘서트<br><br>방중현 나눔특강 <거꾸로 선 나무> (12.20.)<br>- 강연자: 방중현(배우)<br>- 암흑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성숙해 가는 뿌리가 나무의 성장을 돕듯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우리네 삶 속에서 행복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행복 찾기 이야기 |

| 연도   | 내용                                                                                                                                                                                                                                                                                                                                                                                                                                                                                                                                                                          |
|------|-----------------------------------------------------------------------------------------------------------------------------------------------------------------------------------------------------------------------------------------------------------------------------------------------------------------------------------------------------------------------------------------------------------------------------------------------------------------------------------------------------------------------------------------------------------------------------|
| 2018 | 제3회 만덕문화대상 나눔공모전 (공모 8.18.~9. 30. / 시상 10.21.)<br>- 김만덕의 도전과 나눔정신에 대한 각종 창작분야 공모전 시행<br>- 일반부문: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br>- 학생부문: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6명 시상<br><br>김만덕 나눔콘서트 (12. 21. / 제주아트센터 / 1,200명 관람)<br>- 밴드 잔나비를 초청해 전 세대가 공감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콘서트 진행<br><br>선 나눔특강 <선과 함께하는 나눔의 행복> (3.24.)<br>- 강연자: 선(가수)<br>- 전 세계 1,000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게 된 계기와 루게릭 전문요양병원과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에 참여하게 된 이야기 등 다방면에서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수 선의 이야기<br><br>서경덕 나눔특강 <사회공헌 활동이 세상을 바꾼다> (8.18.)<br>- 강연자: 서경덕(대학교수, 한국 홍보 전문가)<br>- 서경덕교수의 다양한 경험과 에피소드로 김만덕의 구휼이 갖는 의미와 현대사회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회공헌활동 공유 |
| 2019 | 제4회 만덕문화대상 나눔디자인공모전 (공모 9.10.~10.3.1. / 시상 12.14.)<br>- 김만덕의 도전과 나눔정신에 대한 문화상품 및 캐릭터 디자인 공모<br>- 일반부문: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5명,<br>- 학생부문: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5명 시상<br><br>이만수 나눔특강 <헬크 이만수의 도전과 나눔> (12.20.)<br>- 강연자: 이만수(헬크파운데이션 이사장, 전 SK 와이번스 감독)<br>- 야구선수 이만수와 코치·감독 이만수의 도전과 결실, 헬크파운데이션 설립과 유소년 야구 및 야구 부흥을 위한 나눔 활동, 야구 불모지 라오스에서 새롭게 펼쳐는 야구인 이만수의 도전                                                                                                                                                                                             |
| 2020 | 제5회 만덕문화대상 아트상품 공모전 (공모 9.1.~9.21. / 시상 10.24.)<br>-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념관 활용 문화상품 공모<br>- 일반부 및 학생 대상 2명 등 총 10명 시상                                                                                                                                                                                                                                                                                                                                                                                                                                                               |
| 2021 | 제6회 만덕문화대상 아트상품 공모전 (공모 9.23.~9.30. / 시상 10.22.)<br>- 전 국민을 대상으로 김만덕기념관에서 활용 가능한 아트상품 공모<br>- 대상 및 최우수상 등 총 9명 시상                                                                                                                                                                                                                                                                                                                                                                                                                                                           |
| 2022 | 제7회 만덕문화대상 굿즈 디자인 공모전 (공모 9.1.~9.30. / 시상 10.20.)<br>- 김만덕기념관에서 활용 가능한 굿즈 디자인 공모<br>- 대상 및 최우수상 등 총 17명 시상                                                                                                                                                                                                                                                                                                                                                                                                                                                                  |
| 2023 | 제8회 만덕문화대상 어린이 문화콘텐츠 공모전 (공모 4.28.~10.31. / 당선작 발표 11.15)<br>- 전국 어린이 대상 ‘김만덕’, ‘나눔’ 주제 문화콘텐츠(그림, 글, 영상) 공모<br>- 유치부 158점, 초등부 209점 접수, 총 35명 시상                                                                                                                                                                                                                                                                                                                                                                                                                            |

VI. 관람객 및 만덕홀 등 시설 대관

| 연도   | 합계(명)   | 내국인(명)  | 외국인(명) | 대관(회) | 비고               |
|------|---------|---------|--------|-------|------------------|
| 2015 | 39,602  | 39,575  | 27     | 29    |                  |
| 2016 | 65,772  | 65,663  | 109    | 83    |                  |
| 2017 | 81,401  | 80,689  | 712    | 125   |                  |
| 2018 | 106,570 | 104,661 | 1,909  | 104   |                  |
| 2019 | 116,694 | 115,285 | 1,409  | 135   |                  |
| 2020 | 15,418  | 15,351  | 67     | 9     | 코로나19 예방 입장제한    |
| 2021 | 15,522  | 15,468  | 54     | 3     | 코로나19 예방 입장제한    |
| 2022 | 30,584  | 30,507  | 77     | 66    | 코로나19 예방 일부 입장제한 |
| 2023 | 45,920  | 45,554  | 366    | 90    |                  |
| 2024 | 51,842  | 51,254  | 588    | 91    | 12월 22일 기준       |
| 합계   | 569,325 | 564,007 | 5,318  | 735   |                  |

VII. 운영성과

1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 공립박물관 등록: 2016. 3.28. 김만덕기념관 1종 공립박물관 등록(제2016-6호)
-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평가 인증(2023.1.1.)

인증 결과

2022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결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2022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인증 결과

| 기관명    | 인증여부 | 평가 점수 |
|--------|------|-------|
| 김만덕기념관 | 인증   | 87.2  |

2. 평가 결과

1) 범주

| 평가범주                  | 배점  | 기관점수 |               | 전체 총점 및 범주별 달성도 (267개관) |
|-----------------------|-----|------|---------------|-------------------------|
|                       |     | 원점수* | 100점 기준(달성도)* |                         |
| 총점                    | 100 | 87.2 | -             | 67.2                    |
| 설립 목적의 달성도            | 15  | 14.0 | 93.3          | 74.0                    |
| 조직 인력 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 | 25  | 20.5 | 82.0          | 68.5                    |
|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 20  | 16.2 | 81.0          | 66.4                    |
| 전시 계획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실적  | 30  | 27.7 | 92.3          | 66.6                    |
| 공적책임                  | 10  | 8.8  | 88.0          | 57.3                    |

\* 원점수는 평가 점수를 배점으로 환산한 점수이며, 100점 기준 점수(달성도)는 지표별 배점을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임

| 평가범주                  | 전체 평균 점수(267개 박물관) | 기관 점수 |
|-----------------------|--------------------|-------|
| 설립 목적의 달성도            | 74.0               | 93.3  |
| 조직 인력 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 | 68.5               | 82.0  |
|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 66.4               | 81.0  |
| 전시 계획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실적  | 66.6               | 92.3  |
| 공적책임                  | 57.3               | 88.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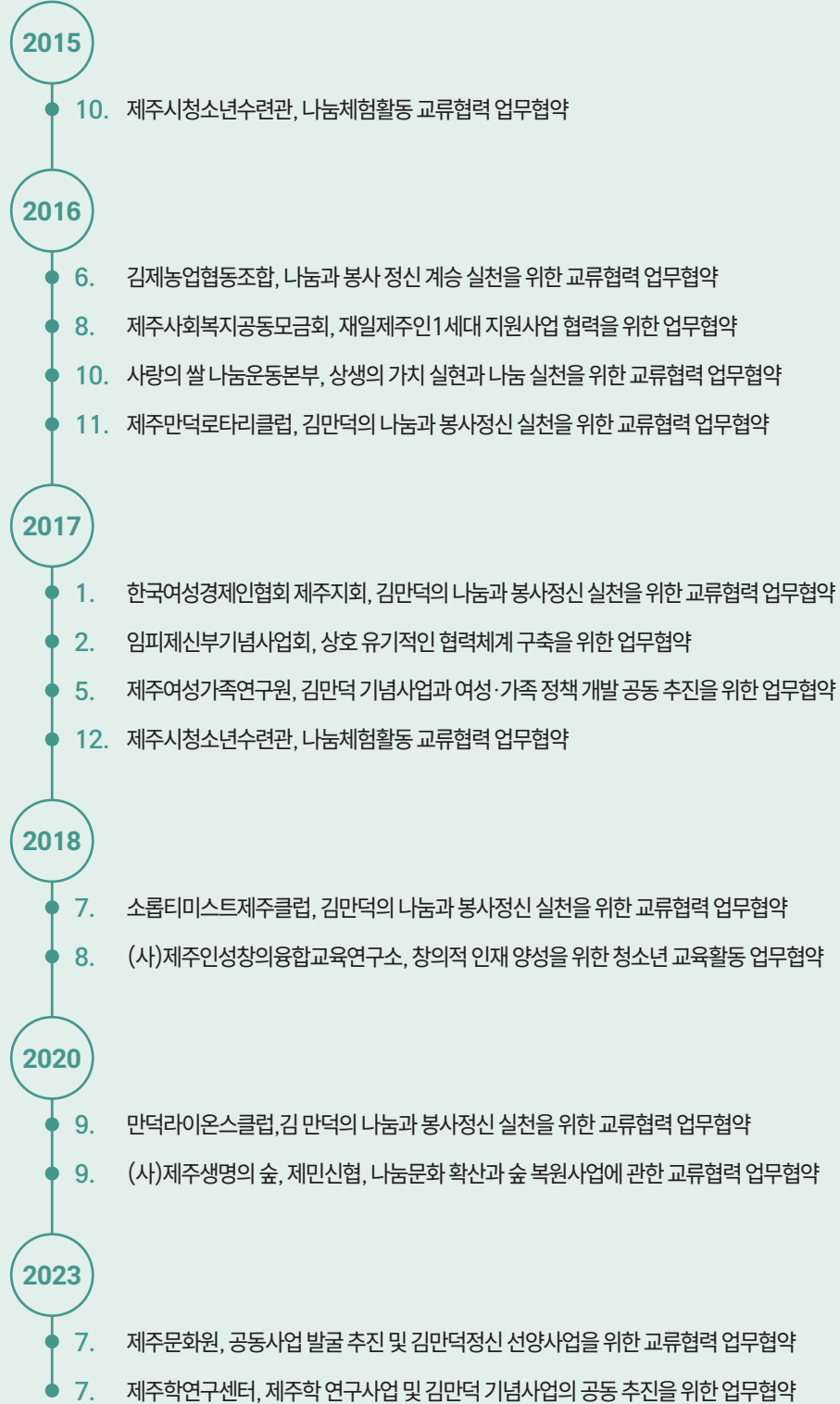
\* 기념관은 개관 이후 처음으로 평가인증 대상이 되어 1회만에 우수박물관으로 선정

\* 전국 272개 공립박물관을 대상으로 평가결과 김만덕기념관을 비롯해 51%인 139개관이 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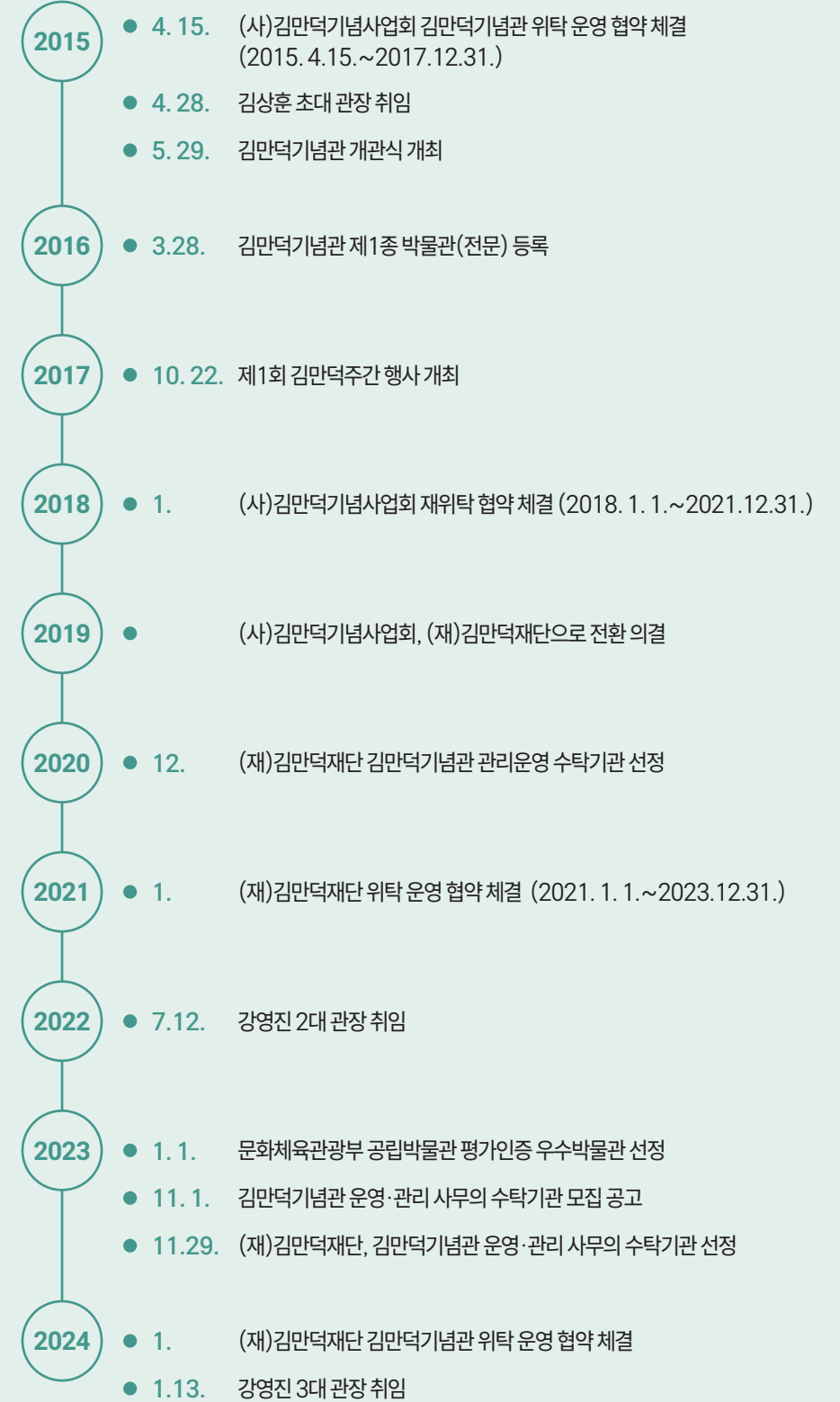
## 2

### 지역사회 상생협력 - 업무협약



## 3

### 연혁



## 김만덕국제상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

김만덕국제상의 위상과 격을 높이기 위해서 상의 권위, 철저한 수상자 검증, 공감대 형성 등 운영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의견은 나눔 정신과 빈곤 퇴치에 기여한 김만덕 정신을 세계화하기 위해 지난 8월 신설된 ‘김만덕국제상’ 운영을 앞두고 열린 ‘김만덕국제상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에서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김만덕재단(이사장 양원찬)과 김만덕기념관(관장 강영진)이 주관한 이 날 포럼은 도내외 전문가, 김만덕상 역대 수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11일 김만덕기념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 날 포럼은 김만덕상 제정 이후 세부 김만덕상 운영방안을 찾아보기 위한 첫 자리로, 국제상의 위상 제고 방안과 구체적인 운영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모아졌다.

이 자리에서는 예종석 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이자 한양대학교 명예교수의 ‘김만덕국제상 위상 제고 방안’, 정호기 제주4·3평화상실무위원회 위원장 겸 우석대학교 교수의 ‘제주4·3평화상 제정과 운영 그리고 특성’에 대한 주제발표와 김석운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오수용 제주대학교 로스쿨 교수 겸 전 KCOC(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사무총장)·진선희 한라일보 기자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 날 발표된 주제발표와 토론 요지를 요약해 게재한다.

“김만덕국제상 운영의 관건은 상의 권위와 지명도”

국제상의 지향점은 “세계빈곤운동의 대표 인물”로  
운영 주체, 운영 절차, 후보 교차검증, 공감대 형성 필요



김만덕국제상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 참석자 기념 촬영



“  
상은 권위로  
먹고 산다  
”



## 발표문 1. 김만덕국제상 위상 제고 방안

예종석 (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한양대학교 명예교수)

예종석 한양대학교 명예교수는 “상은 만들기 쉽지만 유지하고 이름을 높이기는 매우 힘들다”면서 “상은 한마디로 권위를 먹고 산다”며 상의 권위 유지를 강조했다.

그는 “국제상을 만들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상이 권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 상은 어떤 형태로든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초기 단계부터 권위 확보를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서울평화상과 노벨상 등 국내외 사례를 소개하면서, 관 주도의 상 운영은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88서울 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서울평화상이 정부 주도에서 운영진의 문제로 민간인으로 교체된 후 존속하고 있으며, 노벨상은 6개 부문을 시상하는데 시상 주체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세계 3대 문학상 중의 하나인 공쿠르상은 상금이 10유로(한화 1만원)이고, 언론계의 풀리처상은 상금이 없는데도 세계적으로 상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만덕의 전국적인 지명도 올리기에 도민사회 노력 필요  
운영 주체는 관과 도민 중심 탈피 ... 누구라도 납득할 만한 인사로 구성해야

그는 상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소개했다.

그는 첫째, 지명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만덕 할머니는 서울에서 쌀 천 섬, 만 섬 쌓기 행사나 드라마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알려져 있지만, 제주도 외에는 전국적인 지명도를 얻고 있지 않다”면서 “위인으로 김만덕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해서 김만덕의 활동을 알리는 일을 도민들이 앞장서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노벨상이나 아카데미상과 같이 전 세계인의 이목을 받도록 ‘관심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셋째,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수상자의 업적과 심사의 공정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상금도 공쿠르상처럼 적은 것보다는 이왕이면 받은 사람도 상금이 대단하구나 느낄 정도는 돼야 상의 권위가 생긴다”면서 “상의 권위를 세울 정도로 상금 확보에 노력하여야 하며, 초라하게 시작할 거면 시작

을 미루라고 권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운영 주체는 관 주도는 안되며, 도민 중심에서 벗어나 납득할만한 인사들로 운영관리 주체를 꾸려야 한다”고 밝히면서 “상위 권위와 지명도를 높여야 수상자 면면을 보고 상의 권위를 실감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상의 세레머니도 매우 중요한데 아카데미 시상 장면이 그 사례이며, 상을 주는 사람들이 받는 사람보다 유명한 사람이 나와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위상이 대단히 높는데 김만덕상이 세계적으로 외경심을 가질 만한 상이 될 수 있으니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이상을 잘 만들어서 제주도 뿐만 아니라 나라의 위상을 세우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발표문 2. 제주4·3평화상 제정과 운영 그리고 특성

정호기 (제주4·3평화상실무위원회 위원장·우석대학교 교수)

두 번째 발제자인 정호기 제주4·3평화상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제주 4·3평화상 제정 과정에서위원회 구성과 운영, 후보자 추천과 선정 절차, 상의 특성 등 운영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4·3평화상 제정 당시 서울평화상 등 여러 평화상과 인권상 등 비슷한 상들이 많아서 체계를 잡는 과정이 녹록치 않았다”면서 “상의 정체성과 권위를 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당시 4·3문제에 대해 제약과 변수가 적지 않았으므로 이념 논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다 엄격히 관리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평화상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포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며 포상의 권위가 훼손되지 않고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신중하게 고려해 위촉되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보면 위원회의 구성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 4·3평화상 수상의 첫 걸음이자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후보자 발굴과 조사 및 추천은 실무위원회에서 맡고 있다”면서 “11개의 항목에 맞춰 논의를 통해 작성하고,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청

“  
4·3평화상의 위상은  
엄격한  
운영관리시스템  
”





취하여 추천서 작성에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실무위원회 구성이 관건인데,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명망, 활동 분야 등을 고찰하여 검증 후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설명했다.

## 평화상 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중심의 운영 후보자 추천은 실무위 주관 … 수상자 선정은 심의위서 복심제, 만장일치제

그는 “수상자는 평화상위원회가 두 번의 심사 과정을 거쳐 만장일치제로 선정한 후 위원회 이름으로 수여하되, 제주4·3평화재단은 실무적으로 지원할 뿐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서 운영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4·3평화상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과 「제주4·3평화재단 정관」 등 법적 근거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평화상과 특별상으로 구분하여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총 5회 수상자를 선정했고, 2018년 제주4·3 70주년에 맞춰 특별공로상을 시상하기도 했다.

그는 “4·3평화상과 관련, 한계와 과제가 없지 않다”면서 “신규 후보군 발굴, 해외 후보자의 제주4·3관련성의 증명, 다른 유사한 상들과 차별성과 정체성의 확고한 정립, 평화상의 의미와 효과 확산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김만덕국제상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 토론회

발제자의 발표에 이어 문순덕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전문가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 날 토론에서는 상 이름, 위원회 구성, 추진 주체 및 시상 시기, 국제상의 지향점, 수상자 선정의 공정성 및 도민 공감대 형성 등 운영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 토론 1. 김석윤(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 김만덕상 운영 방안 토론회

김석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은 “김만덕 상이 국내외 모두 동일한 이름 중심으로 가는 게 적합한지, 세계인의 관점에서 통용될 수 있는지 전략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위원회 구성은 국내상과 국제상의 추진 절차와 소요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국내상과 국제상 소위원회 2개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위원회 구성은 상의 품격에 맞는 국제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나눔과 베품 정신을 실천한 국제 인사들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추천방식은 행정 중심 방식과 위원회 중심 방식이 있는데, 행정 절차의 신속성과 적극적인 후보 발굴과 충실한 검증이라는 장점이 있다”면서 “두 사례 모두 발굴과 검증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추진주체는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행정이나 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심사위 설치, 구성, 주관 등 선정 절차를 조례에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제상,  
첫번째 포문을 열었고  
단계별로 제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



“국제상,  
적극적인 후보 발굴과  
철저한 검증체계 중요





“  
시대적 과제의  
기반은 빈곤 타파,  
김만덕 정신의  
지향점 변화 필요  
”



## 토론 2. 오수용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만덕국제상이 나아갈 길에 대한 제언’

오수용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만덕국제상의 제정 방향이 김만덕의 명성과 권위 선양인지, 김만덕 정신의 새로운 계승·발전의 궤도를 따르겠다는 것인지 의아심이 든다”면서 “국제상의 궤도를 잘못 선택하면 이 사업의 운영발전에 일정한 협의의 틀에 갇히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면서 국제상의 지향점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

그는 “김만덕국제상이 지향할 참고 사례로 2000년 9월 개최된 UN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새천년개발목표)의 내용을 소개하고 싶다”면서 “새천년개발목표 속에 인류의 미래가 달린 시대적 과제로 ‘빈곤 타파’를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만덕국제상이 제대로 정립된다면 우리의 포부가 여기에 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빈곤 타파 운동의 상징 인물로 김만덕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 모두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상금과 권위 쪽 두가지를 이야기 한다면, 전술적으로 권위를 먼저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구촌 빈곤퇴치 시민네트워크(GCAP Korea) 및 UN 기구와 적극 연결하면 상의 권위를 쌓는 디딤돌을 세울 수 있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 토론 3. 진선희 한라일보 기자

### ‘김만덕상의 도민 공감대와 시상 대상, 수상자 선정’

진선희 한라일보 기자는 “김만덕 상이 권위 있는 상이 되려면 김만덕상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지와 관심을 높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말했다. 진 기사는 “김만덕상은 제주도에 수여하는 상인데 도청 홈페이지에도 이름만 있고, 김만덕기념관 홈페이지에는 수상자 약력과 인터뷰 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다”면서 “김만덕 수상자가 한 생애를 살아오면서 스토리가 있을 텐데 그것만이라도 정리돼 수록된다면 도민 공감대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 기사는 “김만덕상 시상 방안과 관련, 김만덕상은 조선시대 제주여성인물 김만덕의 정신을 널리 알리고 공유한다는 점에서 여성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고, 김만덕국제상은 남·여, 개인·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김만덕상의 시상 취지를 국제로 확대해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면서 “조례 개정으로 김만덕상과 김만덕특별상으로 명칭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 기사는 “수상자 선정에 대해, 후보자 추천 후 심사위원회(15인 이내)와 운영위원회 별도 상설 운영하되, 추천인은 역대 심사위원, 시상 분야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 전문성을 가진 개인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진 기사는 이와 함께 후보자 선정에 앞서 후보자 검증 시스템을 공공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기준으로 보면 후보자 검증 기간이 사실상 한 달 정도밖에 안된다”면서 “교차검증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 등을 일찍 가동하여 공적 내용과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원찬 이사장은 “김만덕기념관 개원 10주년을 맞아 김만덕할머니 정신을 전 세계에 환영시킬 방법 중의 하나가 국제상 신설이이었다”면서 “김만덕상은 제주도에 수여하지만, 그 상의 권위는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생각하기에, 향후 김만덕 정신의 세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은영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은 “김만덕상을 운영한 지 45년이 됐지만, 운영 방식에 대해 한 번도 논의할 자리가 없었다”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TF도 활동을 시작했고, 전문가 포럼도 열었다. 김만덕상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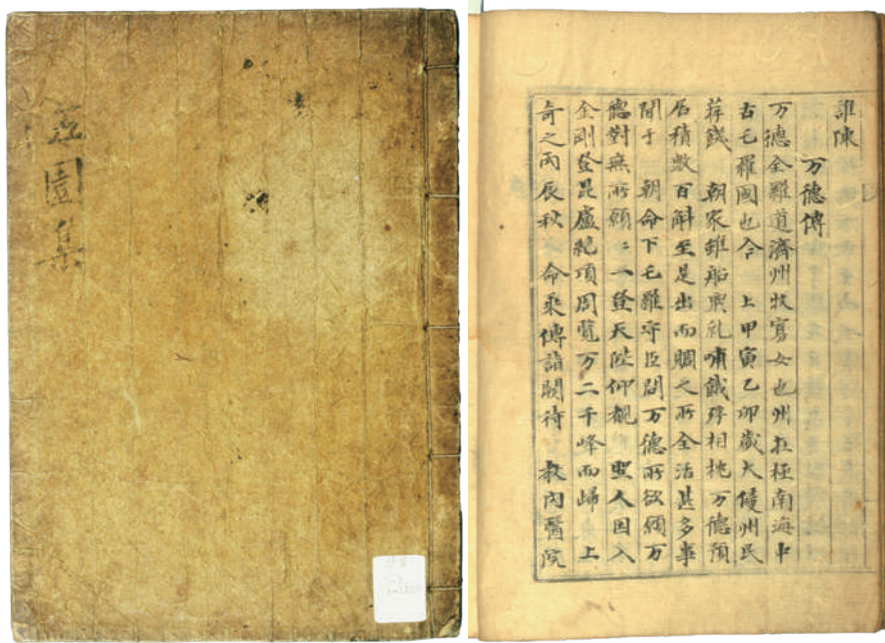
“  
상의 권위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지부터  
”



# 김만덕을 기록한 사람들



## 이재채(李載采) 『오원집(五園集)』 「만덕전(萬德傳)」



이재채(李載采)의 『오원집(五園集)』 「만덕전(萬德傳)」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지은이】

이재채(李載采)의 자는 채부(采夫)이고, 호는 오원(五園)이다. 그의 문집인 『오원집(五園集)』에 실린 글을 통해 그가 대체로 정조~순조 연간에 활동했으며, 학생을 가르치던 숙사(塾師)로 활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 【해제】

『오원집』은 조선 후기 학자인 이재채(李載采·1806~1833)가 쓴 시문집이다. 서문과 발문이 없어 편자 및 편집경위를 알 수 없다. 시 48수, 전(傳) 1편, 소(疏) 1편, 서(序) 5편, 기(記) 5편, 명(銘)·제문·행장·잡고·서(書) 각 1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만덕전(萬德傳)」은 1794년(정조 18) 제주에 흉년이 들자 국가에서 곡식을 운송하여 구휼하였으나 기아를 면하지 못하는데 만덕이 곡식을 내놓아 사람들이 살게 되었고, 그 일이 조정에 알려져 그의 소원대로 금강산과 대궐을 구경하였다는 기록이다. 특히 심노송(沈魯崇·1762~1837)이 만덕을 ‘위선적인 여자’라고 묘사한 반면 이재채는 이 작품에서 전문(傳聞)에서 ‘의협(義俠)의 여성상’으로 그려놓고 있어 눈길을 끈다.

## 만덕전

만덕(萬德)은 전라도 제주목(濟州牧)<sup>1)</sup>의 과부이다. 머나먼 남해에 있는 제주는 옛날의 탐라국(耽羅國)이다. 정조 갑인년(甲寅年)<sup>2)</sup>과 을묘년(乙卯年)<sup>3)</sup>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 제주도에도 거둬 기근이 들어 조정에서 배로 곡식을 실어다가 구휼하였지만, 굶어 죽는 시체가 이어졌다. 만덕은 수백 섬의 곡식을 저축하였는데, 이때 곡식을 풀어서 구휼하여 목숨을 구한 사람이 매우 많았다. 이 일이 조정에까지 알려져 조정에서 탐라 목사에게 만덕의 소원을 묻게 하였다. 만덕은, “다른 소원은 없지만, 한 번 궁궐에 가서 임금님의 용안을 우러러 뵙고, 금강산에 들어가 비로봉(毗盧峯)<sup>4)</sup> 정상에 올라 일만 이천 봉<sup>5)</sup>을 모두 구경한 뒤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자, 임금께서 이를 기특하게 여겼다. 병진년(丙辰年)<sup>6)</sup> 가을 만덕에게 역마를 타고 올라오게 하여 대궐에 와서 내의원(內醫院)<sup>7)</sup>에서 하교를 기다리게 하였는데, 소관(小官)으로 대접하였다. 이듬해 정사년(丁巳年)<sup>8)</sup> 봄에 음식과 역마를 제공하여 금강산을 유람하고 몇 달 후에 서울로 돌아왔다. 이로 인해 만덕의 이름이 사방에 알려지게 되었다. 만덕이 이윽고 제주로 돌아가겠다고 청하니, 또 역마를 타고 내려가 제주로 돌아가게 하였다.

처음 만덕이 서울에 왔을 적에 윤상국(尹相國)의 소부(小婦)<sup>9)</sup>가 사는 처소에서 묵었다. 한 달쯤 지나 만덕이 돈 천오백을 싸들고 가서 소부에게 감사의 마음이나마 전하려고 하였다.

“이제 거처를 정했습니다. 댁에서 고맙게도 오랫동안 편안히 머물렀기에 성의나마 표하려고 합니다.”

“내가 보답을 바라는 대접했겠나?” 소부가 웃으며 이렇게 말하니, 만덕이 그냥 돈을 싸 가지고 갔다. 며칠 뒤에 만덕이 길을 지나다가 소부에게 들러 문안인사를 하자, 소부가 조용히 만덕에게 말하였다.

“우리 집 노복들이 ‘만덕이 돈을 싸들고 왔는데 아씨께서 사양하였다고 하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들과 온종일 즐기며 돈을 다 써버려야 하잖아. 누가 만덕을 여자 의협(義俠)<sup>10)</sup>이라 하는가?’ 하였네.”

“재물을 잘 쓰는 자는 밥 한 그릇으로도 굶주린 사람의 인명을 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썩은 흙과 같지요. 더구나 돈 천여 원미가 밥 한 그릇에 비길 바이겠습니까.”

서울의 악소(惡少)<sup>11)</sup>중에 만덕이 재물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접근하려는 자가 있었다. 만덕은 단호히 거절하였다.

1) 제주목(濟州牧): 조선조 때 제주도의 행정구역을 셋으로 나누었는데, 한라산 북쪽을 제주목(濟州牧)이라 하고 산 남쪽을 동서로 나누어 서쪽을 대정현(大靜縣), 동쪽을 정의현(旌義縣)이라 했음.

2) 갑인년(甲寅年): 1794년(정조 18).

3) 을묘년(乙卯年): 1795년(정조 19).

4) 비로봉(毗盧峯): 강원도 고성군 장전읍(長箭邑)과 회양군 내금강면(內金剛面) 사이에 있는 금강산의 최고봉. 높이 1,638m.

5) 일만 이천 봉: 실제 금강산의 봉우리가 일만 이천 봉우리인 것은 아니며, 일만 이천 봉은 불경에서 유래된 말로 그만큼 봉우리가 많다는 것을 강조한 말임.

6) 병진년(丙辰年): 1796년(정조 20).

7) 내의원(內醫院): 조선 때 삼의사(三醫司)의 하나. 대궐에서 소요되는 의약(醫藥)을 맡아보던 관청.

8) 정사년(丁巳年): 1797년(정조 21).

9) 소부(小婦): 첩.『(漢書)』「元后傳」(王) 鳳知其小婦弟張美人嘗已適人)

10) 의협(義俠): 정의를 위하여 강자에 맞서서 약자를 도움. 또는 그런 사람.

11) 악소(惡少): 행실이 좋지 못한 젊은이. 악자(惡子).『(荀子)』「脩身」無廉恥而嗜 乎飲食 則可謂惡小者矣)



“내 나이 쉰 살이다. 저들은 내 얼굴을 예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재물이 탐나서 그런 것이다. 굶주린 사람들을 구휼하기에도 부족한데, 어느 겨를에 탕자(蕩子)<sup>12)</sup>를 살찌우겠는가.”

#### 万德傳

万德 全羅道濟州牧寡女也 州在極南海中 古毛羅國也 今上甲寅乙卯 歲大侵 州民荐饑 朝家雖船粟就哺 餓殍相枕 万德預居 積數百斛 至是出而賙之 所全活甚多 事聞于朝 命下毛羅守臣問万德所欲願 万德對無所願 願一登天陞 仰觀聖人 因入金剛登毘盧絕頂 周覽万二千峰而歸 上奇之 丙辰秋 命乘傳詣闕 待教

內醫院 視斗食 翌年丁巳春 給廚傳 遊金剛 凡數易月 還到京師 於是 万德名聞四方矣 已而乞歸 又乘傳還毛羅 初万德入京師 客尹相國小婦所 月餘 以錢千五百往謝曰 今則定館他所 顧受惠宅上 久矣 敢布鄙誠 小婦笑曰 吾豈食女望報邪 万德因齋去 後值過候小婦 小婦從容言曰 聞門下僕使輩謂女既齋錢入門 小君固不受 獨不可與吾曹一日虞飲罷也 誰謂万德女義俠 万德謝曰 善用財者 簞食亦能濟餓人命 否則糞土也 錢千餘 又豈特簞食也哉 京師惡少 聞万德財雄 欲褻狎之 万德曰 吾年五十餘矣 彼非艷我貌也 艷我財也 吾方且顛連之 周恤不瞻 奚暇 肥蕩子乎 拒絕之



#### 조수삼(趙秀三)

『추재집(秋齋集)』권7  
「만덕(萬德)」

#### 【지은이】

조수삼(趙秀三·1762~1849)은 조선 후기의 여항시인(閩巷詩人)으로 본관은 한양(漢陽)이며, 자는 지원(芝園) 또는 자익(子翼), 호는 추재(秋齋) 또는 경원(經畹)이다. 가선대부 한성부좌윤겸오위도총부부총관(漢城府左尹兼五衛都摠府副摠管)에 추증된 원문(元文)의 아들이며, 여항시인 경렴(景濂)의 동생이고, 조선 말기의 화원(畫員)인 중묵(重默)은 그의 손자이다. 아들 4형제가 있고 손자·증손이 다수이다. 88세로 세상을 떠났다.

신분의 제한으로 1844년(헌종 10) 83세의 나이로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니 고급관원들이 몸소 와서 축하하는 이가 수십 인이나 되었다. 송석원시사(松石園詩社)의 핵심적인 인물로 활동하였으며, 정이조(丁彝祚)·이단전(李亶佃)·강진(姜潛)·조희룡(趙熙龍)·김낙서(金洛瑞)·장혼(張混)·박윤묵(朴允默) 등 여항시인과 사귀었으며, 김정희(金正喜)·김명희(金命喜)·조인영(趙寅永)·조만영(趙萬永)·한치원(韓致元)·남상교(南尙敎)·이만용(李晩用) 등 당시의 쟁쟁한 사대부들과도 친밀히 지냈다.

12) 탕자(蕩子): 방탕한 사람.



조수삼(趙秀三)의 『추재집(秋齋集)』 권7 「만덕(萬德)」

풍채가 아름답고 연하(煙霞)의 기운이 있었으며, 문(文)과 시(詩)는 크고 넓었으며 시에 가장 뛰어났다. 여섯 번이나 중국을 유람하여 사해내(四海內)의 시인들과 교류하였으니 그의 시파는 오로지 압록강의 동쪽에만 있지 않았다. 세상이 말하기를, “추재(秋齋)가 학문이나 지식을 많이 쌓은 것이 무릇 열 가지가 있는데, 사람이 그 중에 한 가지만 얻는다면 일생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첫째는 풍도(風度), 둘째는 시문(詩文), 셋째는 공령(功令), 넷째는 의학(醫學), 다섯째는 바둑, 여섯째는 글씨와 그림, 일곱째는 기억력, 여덟째는 담론(談論), 아홉째는 복택(福澤), 열째는 장수(長壽)이다. 처음에 중원(中原)에 유람할 때에 길에서 강남사람을 만나 같이 한 수레를 타고 가는 사이에 그 말을 다 배워서 중국 도성의 사람들과 말하는데 붓이나 남의 통역을 빌지 않았다고 한다. 한 중국 사람과 사귀어 우정이 두텁더니, 그 뒤 몇 해에 그 삶은 죽고 그의 아들이 떠돌아다니다가 요계(遼薊) 사이에

서 서로 만나게 되었다. 옛 일을 회상하니 감회가 일어나서 가진 돈을 다 털어 그에게 주었다.

시문 약간 권이 있는데 운석(雲石) 조인영(趙寅永)이 출판하였다.

#### 【해제】

『추재집』은 조수삼이 남긴 총 8권 4책의 시문집이다. 권1로부터 6은 시, 권7은 고려공사·추재기이·외이죽지사(外夷竹枝詞)·공령시(功令詩), 권8은 서(序)·기(記)·전(傳)·제문(祭文)·상량문(上樑文)·전(箋)·계(啓)·서(書)·찬(贊)·명(銘)·발(跋)·지(識)·서후(書後)·잡저(雜著)·부(賦)·세시기(歲時記), 부록은 추재선생전 등으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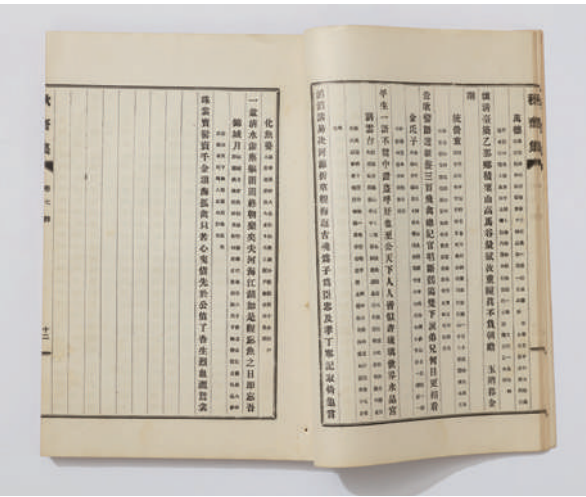
「만덕(萬德)」 작품은 조수삼의 『추재집』권7의 『추재기이』 중 ‘시(詩)’편에 수록되었다. 『추재기이』는 조선 후기 도시 하층서민들의 시정생활을 그려낸 것으로 그 구성방식이 특이한데, 우선 제목 아래 간단한 인물중

심의 일화를 적고, 그 내용을 다시 칠언절구로 압축하였다. 마찬가지로 만덕의 이야기도 앞부분은 만덕에 대한 대강의 이야기를 서술하였고, 뒷부분은 만덕에 대한 칠언절구 한시가 한 수 수록되었다. 전반부의 만덕에 대한 대강의 이야기는 극도로 축약된 형태인데, 특이한 것은 만덕의 눈동자를 중동(重瞳)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후반부의 한시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사실로서 체제공의 「만덕전」에도 없는 새로운 내용이다.

### 만덕

만덕은 제주 기생이다. 집안에 재산이 많았으며 한 쪽 눈이 겹눈동자<sup>13)</sup>이었다. 정조 임금 임자년(壬子年)<sup>14)</sup>에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만덕은 수천 석의 곡식과 수천 께미의 돈을 내어, 한 고을의 백성을 진휼(賑恤)하여 살려내었다. 임금께서 그것을 매우 가상히 여겨 사람을 시켜 그 소원을 묻게 하였다. 대답하기를, “저는 여자이며 천인이옵니다. 다른 소원은 없사옵고 단지 한 번 임금님이 계시는 궁궐을 보고 금강산을 한 번 보는 것이 소원입니다.”라고 말했다. 마침내 역참에 명하여 말을 내어 상경케 하고는 약원 내의원(內醫女)<sup>15)</sup>의 행수(行首)<sup>16)</sup>로 귀속시켰다. 명하여 노자를 주어 금강산에 가서 구경케 하였다.

13) 겹눈동자: 중동(重瞳). 겹으로 된 눈동자. 또는 제왕(帝王)의 눈을 이르는 말. 순(舜)임금이나 항우(項羽)는 눈동자가 둘이었다고 함  
14) 임자년(壬子年): 1792년(정조 16).  
15) 내의원(內醫女): 내의원(內醫院)에 소속되어 있는 의녀(醫女). 『朝鮮宣祖實錄』33년 6월 辛丑條, 以備忘記傳于政院曰 側聞內醫女愛鍾 乃淫娼之甚者 本不可近 於內殿之側)  
16) 행수(行首): 동급의 품계나 신분을 가진 여러사람 중에서의 우두머리.『朝鮮太祖實錄 3』2년 3월 丙辰條, 憲司上言 殿下曾下敎 奴婢爭訟 一皆永斷 刑曹都官不 體上意 巧飾啓聞 欲起爭訟之端 請將知曹事張演議郎張羽 正郎趙謙佐郎尹莘等 皆罷職不敘 敎罷行首張演掌務尹莘老職)  
17) 회청대(懷淸臺): 여회청대(女懷淸臺)의 고사(故事). 지금의 사천성 장수현(四川省 長壽縣) 남쪽에 있는 대(臺)의 이름. 『史記』「貨殖傳」에 “과(巴)의 과부(寡婦) 청(淸)은, 그 선조가 단혈(丹穴)을 얻어, 그 이익을 여러 세대에 걸쳐 독점하였으며 집이 또한 어렵할 수 없이 부유하였음. 청(淸)은 과부인데도, 잘 그 가업을 지키고, 용재(用財)를 자위(自衛)하여 침범을 보지 못하였음. 진시황이 정부(貞婦) 라고 하여 객(客)으로 대접하고 여회청대(女懷淸臺)를 지어 주었다.”고 한다.  
18) 을나(乙那): 흔히 제주민의 시조라고 일컬어지는 고을나(高乙那)·양을나(良乙 那)·부을나(夫乙那).



조수삼(趙秀三)의 『추재집(秋齋集)』 권7 「만덕(萬德)」 만덕전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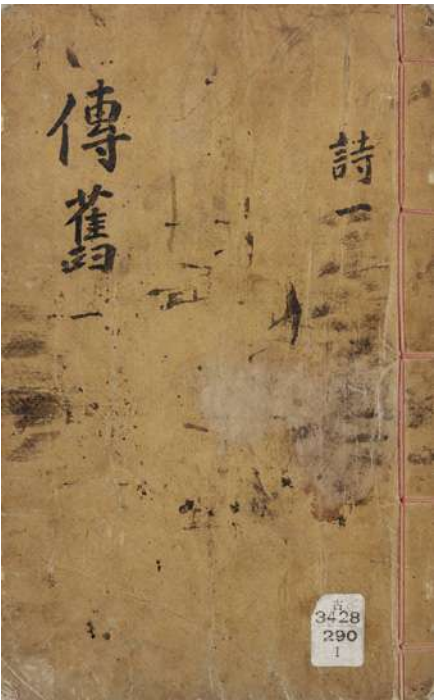
회청대(懷淸臺)<sup>17)</sup>를 을나(乙那)<sup>18)</sup>의 고향에 지어 놓고 곡식 쌓은 것이 산처럼 높아 마곡 고을에 쌓았네. 네개 겹눈동자 내어주신 것 진실로 저버리지 않아 아침에 궁궐 보고 저녁에 금강산 구경하였네.

### 萬德

萬德 濟州妓也 家貲鉅萬 一雙眼重瞳 正宗壬子 州大歉 萬德出數千斛穀 數千緡錢 賑活一邑之民 上大嘉之 使問其所願 曰 萬德 女子賤人也 無他願 惟願一瞻天陸 一見金剛 遂命騎駟上京 屬之藥院內醫女行首 仍令廚傳 往遊金剛 懷淸臺築乙那鄉 積粟山高馬谷量 賦汝重瞳眞不負 朝瞻玉階暮 金剛

### 홍희준(洪羲俊)

『전구(傳舊)』  
「만덕전(萬德傳)」



홍희준(洪羲俊)의 『전구(傳舊)』 「만덕전(萬德傳)」 (이미지 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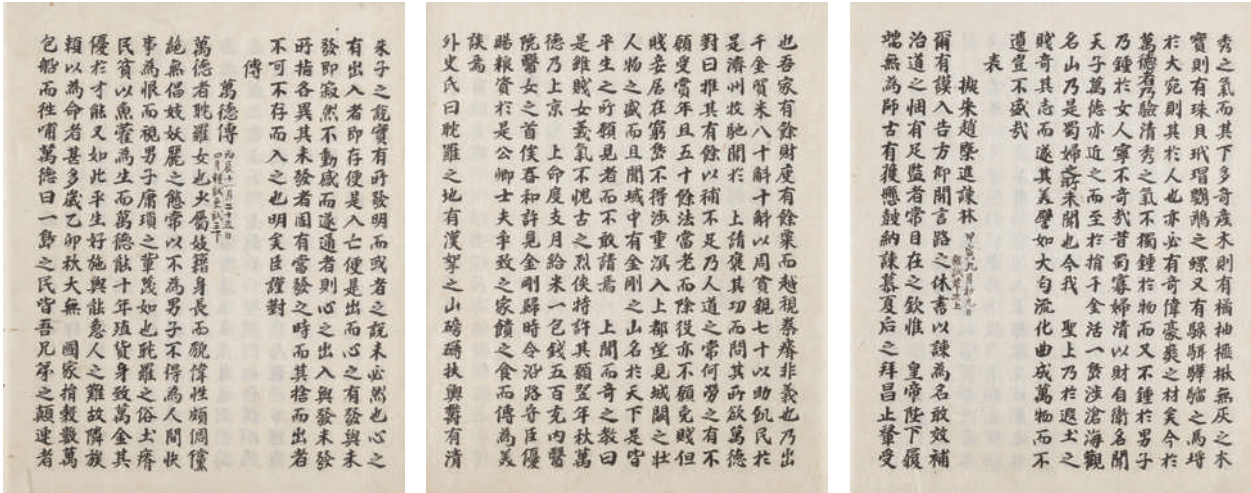
### 【지은이】

홍희준(洪羲俊·1761~1841)은 조선 후기 문신으로 본관은 풍산(豊山)이며, 자(字)는 중심(仲心), 호(號)는 훈곡(薰谷), 초명(初名)은 낙준(樂浚)이다. 조부는 홍진보(洪鎭輔), 부친 홍정한(洪挺漢)이다. 1794년 34세의 늦은 나이로 과거에 급제하여 초계문신으로 선발되었다. 1794년 10월부터 이듬해 윤2월까지 동지정사(冬至正使·조선시대 동짓날에 중국에 파견하는 수석 사신)인 생부 홍양호를 따라 북경에 다녀왔으며, 1804년 성균관전적에 제수된 것을 시작으로 1834년까지 정승을 제외한 청요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1804년(순조 4) 정언(正言)을 지내고 1807년 시독관(侍讀官)에 임명되었다. 이듬해 공충좌도(公忠左道) 암행어사로 나갔다가 돌아와 통정대부(通政大夫)로 품계가 올랐으며, 1816년 대사성에 올랐다. 1819년 대사간을 거쳐 홍문관제학·이조참판, 대사헌을 역임하고 1826년 정경대부(正卿大夫)로 발탁되어 한성부판윤을 지냈다. 1826년 10월부터 1827년 3월까지 동지사 겸 사은사의 정사로 청나라를 다녀왔으며, 이듬해 외보(外補)로 광주부유수(廣州府留守)로 나갔다가 돌아와 홍문관제학에 임명되었다. 이어 좌부빈객·우부빈객·예문관제학·한성부판윤·수원부유수·이조판서를 역임하였다.

### 【해제】

홍희준의 문집이다. 불분권 11책의 필사본이다. 표제는 ‘전구(傳舊)’, 권수제나 권미제 등은 없다. 필체가 다양하여 여러 명이 필사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표지에 ‘시일(詩一)’, ‘시이(詩二)’, ‘시삼(詩三)’, 4책에서 6책까지는 ‘문일(文一)’, ‘문이(文二)’, ‘문삼(文三)’이라고 적혀 있다. 7책과 8책은 비지(碑誌)를 수록하였는데 표지에 ‘비지일(碑誌一)’, ‘비지이(碑誌二)’라고 적혀 있다. 9책에서 11책까지는 각각 ‘소차(疏筭)’, ‘초계응제(抄啓應製)’, ‘잡저(雜著)’라고 적혀 있다. 대체로 창작 연대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묵서(墨書) 혹은 첨지(籤紙)를 붙여 내용을 교정하고 보완한 흔적과 평비(評批)를 한 부분이 있다. 서문은 책4의 앞머리에 제목 없이 수록되어 있는데 청나라의 문인 조강(曹江)이 1828년에 지은 것이다. 시는 대체로 연행을 오가거나 관직에 부임하는 길에 지은 것, 친지들과 수창한 것이 많다. 산문은 홍희준의 언어관과 청나라 및 서양에 대한 인식, 《주역》에 대한 경도, 상수학(象數學)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등 다채로운 작품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초계문신에 선발된 이후 고관을 역임하면서 지은 응제문과 소차류 역시 상당수를 차지한다. 본 판본은 미정고(未定稿)이지만 유일본이며,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영인되었다.





홍희준(洪羲俊)의 『전구(傳舊)』 「만덕전(萬德傳)」 (이미지 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만덕전」

1796년(정조 20) 11월 25일에 제출함. 4월 친사가 있었는데, 다시 시험을 치러서 ‘삼하(三下)’의 성적을 받았다.

만덕은 탐라의 여자이다. 어려서 기적에 속해 있었으며, 키는 크고 그의 용모는 걸출하였다. 그의 품성은 뜻이 크고 기개가 있었으며, 결코 창기의 요염하고 아리따운 모습이 없었다. 항상 남자가 되지 못하여 사람 사이에서 통쾌한 일을 하지 못하였음을 한스럽게 생각하였으며, 남자가 어리석고 하찮은 것을 하는 무리들을 보면 멸시하였다.

탐라의 백성들은 가난하였으며, 고기와 미역을 따서 생활하였다. 그래서 만덕은 10년 동안에 재화를 키워 손수 만(萬) 금을 모았다.

그의 재주와 능력이 뛰어남이 이와 같았으며, 평생 동안 베풀기를 좋아했고, 남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잘 보살펴주었다. 그러므로 이웃과 친족들이 의지하여 목숨을 부지하는 자가 매우 많았다.

1795년(정조 19, 을묘) 가을 큰 흉년이 들었을 때 나라에서 곡물 수 만 포(包)를 덜어서 배에 실어 가서 먹이도록 하였다. **김만덕이 말하기를, 온 섬의**

**백성들은 모두 우리 형제로 매우 가난한 자들이다.**

**우리 집에 남아 있는 재화가 있고, 창고에는 남은 곡물이 있으니, 남의 어려운 사정을 모른 척하는 것은 의리가 아니다.** 이에 천(千)금을 내어 쌀 80 곡(斛)을 사서 10곡은 가난한 친척들에게 골고루 주었고, 70석으로는 굶주린 백성들을 도왔다.

이에 제주목사가 임금께 급하게 보고하여 그 공에 대하여 포상해줄 것을 청하였으며, 그가 바라는 바를 물었다.

**김만덕이 대답하기를, “남는 것을 가지고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은 사람의 도리로서 바뀌지 않는 이치이며, 어떤 노고가 있다고 하십니까. 상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며, 나이도 50여 세이므로 법적으로는 노(老)에 해당되어 역(役)에서 제외되니 면천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곤궁한 섬에서 살아 먼 바다를 건너서 서울[上鄣]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성결의 웅장한 모습과 사람들이 많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며, 또한 우리나라에 금강산이 있어서 천하에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들 모두 평생에 보고 싶던 것이지만, 감히 청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임금께서 듣고서 이를 기이하다고 여겨서 명을 내려서 말하기를 “이는 비록 천한 여자이지만, 의로운 기상은 옛날 열협(烈俠)에 비해 부끄러울 것이 없다. 특별히 그가 원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하셨다.

다음해 가을 김만덕이 이에 서울로 올라 왔으며, 임금께서 호조에 명하여 쌀 1포<sup>19)</sup>와 돈 오백<sup>20)</sup>을 지급하고 내의원(內醫院) 의녀의 우두머리[醫女之首]로 삼도록 하였다. 따뜻하고 온화한 봄날을 기다려 금강산을 보는 것이 허락되었으며, 돌아갈 때에는 큰길가를 따라 있는 고을의 수령들이 먹을 것과 비용[糧資]을 충분히 주도록 하였다. 이에 공경대부들이 다투어 그가 머무는 집에 이르렀고 먹을 것을 주었으며, 이러한 것이 전해져 미담이 되었다.

외사신(外史臣)이 이야기하기를, 탐라 땅은 한라산이 있어서 우뚝하니 불뚝 솟아 상서로운 기운이 있으며 맑고 뛰어난 기운이 크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서 기이한 것들이 많이 생산된다. 나무로는 굴유자 비자 가래나무 무회목(無灰木)이 있고, 보물로는 진주 자개[貝] 대모(玳瑁) 앵무소리[鸚鵡螺]이 있다. 또한 천리마[騄駼]<sup>21)</sup> 천리마[驊騮]<sup>22)</sup>가 있어서 대완(大宛)<sup>23)</sup>의 것과 비등하다. 이곳 사람에게 는 또한 반드시 특출하고 호탕하고 의지가 굳센 자

질이 있다.

이번 김만덕에게서 맑고 뛰어난 기운을 증험하였으니, 다만 물산(物産)에만 모인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또한 남자에게 모인 것이 아니라 여인에게도 모인 것이니 어찌 기이하지 않겠는가. 옛날 과부인 청(淸)<sup>24)</sup>이 재물로 자신을 지켜서 천자에게 이름이 알려졌다. 김만덕도 또한 그것에 가깝다. 명산은 곧 파축의 과부의 일에서는 들어보지 못하였다. 지금 우리 성상께서 이에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천한 자에 대해 그의 뜻을 기이하게 여겼으니 그의 아름다움을 이룬 것이다. 비유하자면 교화를 크고 고르게 하여 만물을 곡진히 이루어 주어 빠뜨림이 없게 하였으니,<sup>25)</sup> 어찌 성대한 일이 아니겠는가.

## 萬德傳 丙辰十一月二十五日四月親試更試三下

萬德者 耽羅女也 少屬妓籍 身長而貌偉 性頗倜儻 絕無倡妓妖麗之態 常以不爲男子 不得爲人間快事爲恨 而視男子庸瑣之輩 蔑如也 耽羅民貧 而魚鼈爲生 而萬德能十年殖貨 身致萬金 其優於才能 又如此平生好施 與能急人之難 故隣族賴以爲命者甚多 歲乙卯秋大無 國家捐穀數萬包 船而往哺 萬德曰 一島之民皆吾兄弟 顛連者也 吾家有餘財 庾有餘粟 而

19) 1석(石)이다.

20) 5냥(兩)에 해당한다.

21) 녹이(騄駼): 준마 중 하나이다.

22) 화류(驊騮): 준마 중 하나로 화류(驊騮)와 속상(驢驘)을 들었다. 여기에서는 녹이(騄駼)와 함께 품질이 좋은 우량한 말을 칭한다.

23) 대완(大宛): 한(漢)나라 때 중국인이 중앙아시아의 동부 페르가나(Fergana) 지방을 부르던 이름이다. 헨산 산맥의 서단과 시르다리아강 상류의 파미르 고원 북단에 에워싸인 페르가나 분지, 혹은 이 분지에 있던 왕국을 지칭한다. 지금은 우즈베키스탄에 포함되어 있다.

24) 측나라 과부 청(淸): 진시황(秦始皇) 때 과부 청(淸)을 말한다. 그녀는 선대의 재물을 잘 지켜서 재물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켜 침범을 당하지 않았다. 진시황이 그를 지조 있는 부인(貞婦)라 하여 손님의 예로 대접하고, 여회청대(女懷淸臺)를 쌓았다. 그녀는 시골의 과부로 만승천자(萬乘天子)와 대등한 예로 상대하여 천하에 이름을 드러냈다(『史記』 「貨殖傳」).

25) 『주역』 「계사전 상」 4장에 “천지의 조화를 일정하게 한정시켜 벗어나지 않게 하였으며, 만물을 하나하나 정성으로 만들어 주어 빠뜨림이 없게 하였으며, 주야의 도를 겸하여 알았다. 그러므로 신(神)은 일정한 방소(方所)가 없고, 역은 일정한 체(體)가 없는 것이다.[範圍天地之化而不過 曲成萬物而不遺 通乎晝夜之道而知 故神无方而易无體]”라고 하였다. 이는 역(易)의 도리를 일러 준 성인의 덕을 찬미하는 내용이다.



越視秦瘠 非義也 乃出千金 質米八十斛 十斛以周貧親 七十以助飢民 於是濟州牧馳聞於上 請褒其功 而問其所欲 萬德對曰 推其有餘 以補不足 乃人道之常 何勞之有不願受賞年 且五十餘 法當老而除役 亦不願免賤 但賤妾居在窮島 不得涉重溟 入上都 望見城闕之壯人物之盛 而且聞域中有金剛之山 名於天下 是皆平生之所願見者 而不敢請焉 上聞而奇之 教曰 是雖賤女義氣不愧 古之烈俠 特許其願翌年秋 萬德乃上京 上命度支月給米一包 錢五百 充內醫院醫女之首 俟春和 許見金剛 歸時令沿路守臣優賜糧資 於

是 公卿大夫爭致之家 饋之食 而傳爲美談焉 外史氏曰 耽羅之地 有漢拏之山 磅礴扶輿 鬱有清秀之氣 而其下多奇產 木則有橘柚榧楸無灰之木 寶則有珠 貝玳瑁鸚鵡之螺 又有駱駟驂騮之馬 圻於大宛 則其於人也 亦必有奇偉豪爽之材矣 今於萬德者 乃驗清秀之氣 不獨鍾於物 而又不鍾於男子 乃鍾於女人 寧不奇哉 昔蜀寡婦淸 以財自衛名聞天子 萬德亦近之 名山乃是蜀婦之所未聞也 今我聖上 乃於遐土之賤 奇其志 而遂其美 譬如大勻流化 曲成萬物而不遺 豈不盛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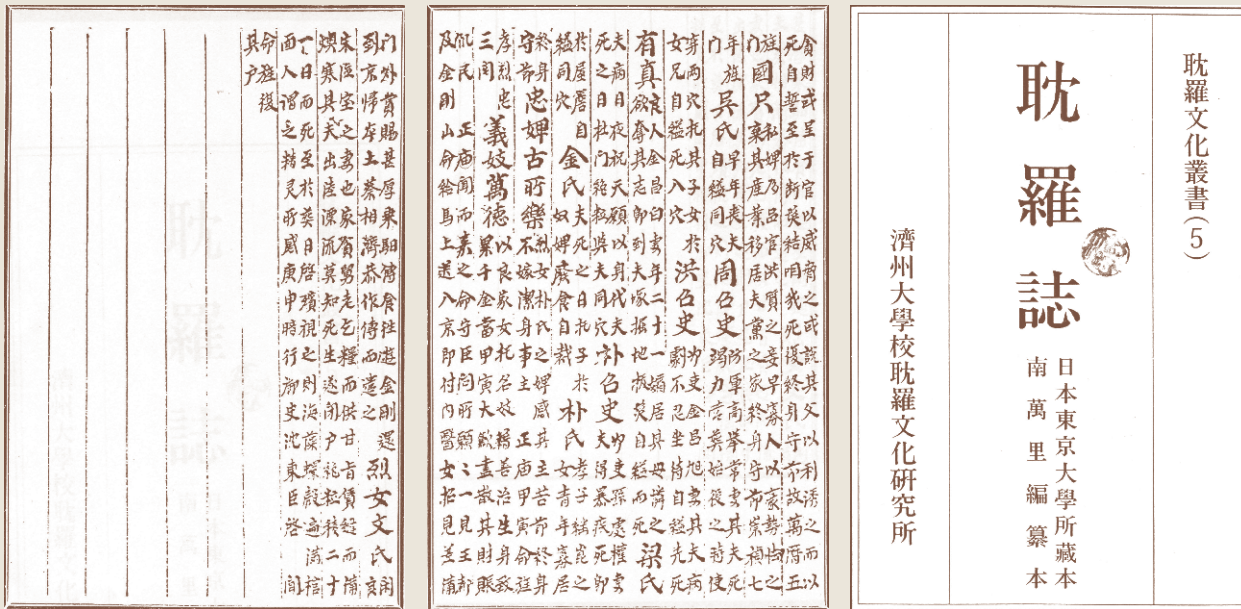


## 남만리(南萬里) 편찬 『탐라지(耽羅誌)』 권1 「의기만덕(義妓萬德)」

### 【해제】

「의기만덕(義妓萬德)」은 남만리(南萬里·1863~1909)가 편찬한 『탐라지(耽羅誌)』에 수록돼 있다. 탐라지는 모두 2권이며, 일본 동경대학에 소장돼 있다. 선생록조(先生錄條)에 이의식(李宜植) 목사까지 수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의 체임(遞任) 시기인 1848년(헌종 14) 3월 이후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된다. 권1에는 제주로 건치연혁(建置沿革)·진관(鎭管)·관원(官員)·읍명(邑名)·읍호고증(邑號攷證)·성씨(姓氏)·풍속(風俗)·형승(形勝)·산천(山川)·도서(島嶼)·교량(橋梁)·토산(土產)·전결(田結)·대동(大同)·봉름(奉廩)·요역(徭役)·성곽(城郭)·방리(坊里)·호구(戶口)·도로(道路)·방호소(防護所)·수전소(水戰所)·봉수(烽燧)·궁실(宮室)·공해(公廩)·누정(樓亭)·창고(倉庫)·조적(糶糴)·학교(學校)·단묘(壇廟)·불우(佛宇)·장관(將官)·군병(軍兵)·공장(工匠)·노비(奴婢)·과원(果園)·목양(牧養)·의약(醫藥)·공헌(貢獻)·고적(古蹟)·선생록(先生錄)·과환(科宦)·인물(人物), 권2에는 제영(題詠)·기문(奇聞)·이견(異見)·변정(邊情)·구례(舊禮)·은휼(恩恤) 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 중 만덕 이야기는 권1의 인물편에 수록되었다. 그 내용은 『탐라지초본』과 거의 일치한다. 다만 끝부분의 두어 자만 다르다(蔡相國濟恭作傳以遣之, 蔡相濟恭作傳 而遣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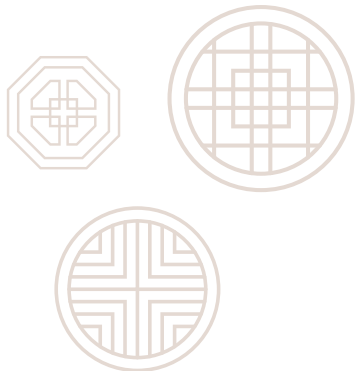
남만리(南萬里)가 편찬한 『탐라지(耽羅誌)』 중 「의기만덕(義妓萬德)」

### 의기 만덕(義妓萬德)

의기 만덕은 양가(良家)의 딸로서 기적(妓籍)에 올랐는데, 생신(生身)을 잘 다스려 수천 금을 이루었다. 갑인년(甲寅年)에 크게 흉년이 들매 재산을 내어놓아 굶주리는 사람들을 진휼하였다. 정조 임금께서 들으시고 가상히 여겨, 목사에게 소원을 묻도록 하였는데, 소원이 왕도(王都)와 금강산을 한번 보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식량과 말을 지급하도록 명하는가 하면, 서울에 도착하자 내의녀(內醫女)로 삼아 차비문(差備門) 밖에서 친히 보시고 상을 매우 후하게 주었다. 역말을 타고 아침저녁으로 날라주는 음식을 먹으며 금강산을 유람하고 서울에 이르렀다가 본토(本土)로 돌아왔다. 상국(相國) 채제공(蔡濟恭)이 그녀의 전기를 지어 제주로 보내 주었다.

### 義妓萬德

義妓萬德 以良家女 托名妓籍 善治生身 致累千金 當甲寅大歉 盡散其財 賑飢民 正廟聞而嘉之 命守臣 問所願 願一見王都及 金剛山 命給馬 上送入京 卽付內醫女 招見差備門外 賞賜甚厚 乘駟傳食往 遊金剛 還到京歸本土 蔡相濟恭作傳 而遣之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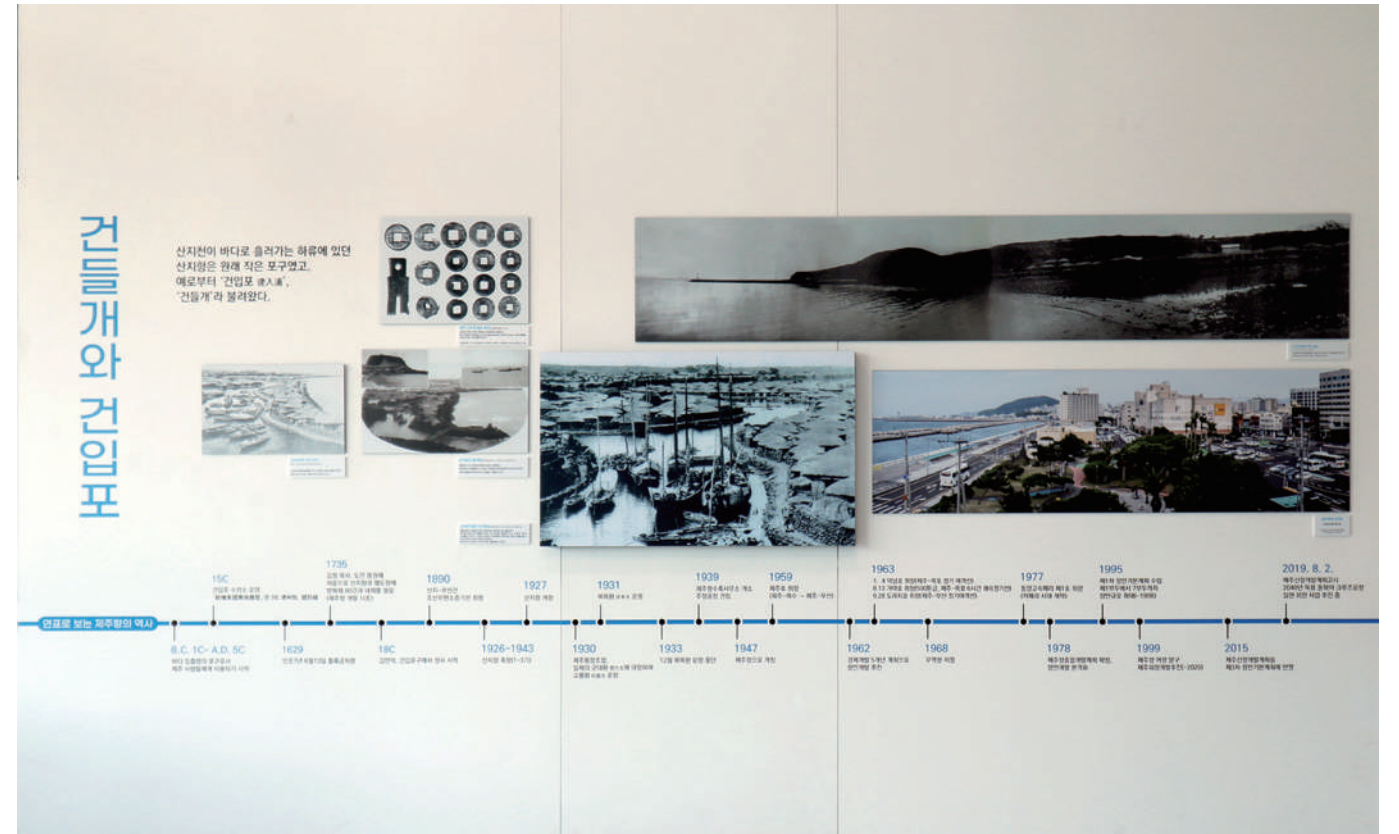
# 2024 김만덕기념관 개관 9주년 특별기획사진전 산지천 포구, 항구가 되다

김만덕기념관(관장 강영진)은 2024년 개관 9주년을 맞이하여 5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특별기획사진전 「산지천 포구, 항구가 되다」를 개최했다.

사진예술공간 ‘큰바다영’과 공동 기획한 이번 전시는 과거 제주의 관문이자 제주도민과 삶을 함께한 산지천의 과거와 오늘을 소개하는 ‘산지천 기획전시’ 시리즈다.

특별기획전의 주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제주항’에 대한 이야기로, 조선시대 김만덕이 장사를 하던 산지천 하류의 건입포부터 일제강점기 산지항 개발의 역사, 제주의 관문으로 거듭난 현재의 제주항까지 시대적 변천사를 담은 사진을 선보였다.

또 전시자문위원으로 참여한 김익수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과 제주항운노조위원장을 역임한 고승화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에게서 들은 제주항 이야기를 영상으로 기록했다.



1



2



3

## 1

산지항의 옛 모습을 기록한 사진들(사진 김성훈)

## 2

산지마을 옛 모습(고성철 제공)

## 3

탐동에서 바라본 산지마을 현재 모습  
(사진 고경대 / 장소제공 라마다프라자제주)

## 건들개와 건입포

연표로 보는 건입포부터 현재 제주항까지의 전체적인 역사 흐름과 함께 일제강점기 이전 건입포의 모습을 담았다.

산지항은 산지천이 바다로 흘러가는 하류에 있던 작은 포구였고, 예로부터 ‘건입포(建入浦)’라고 불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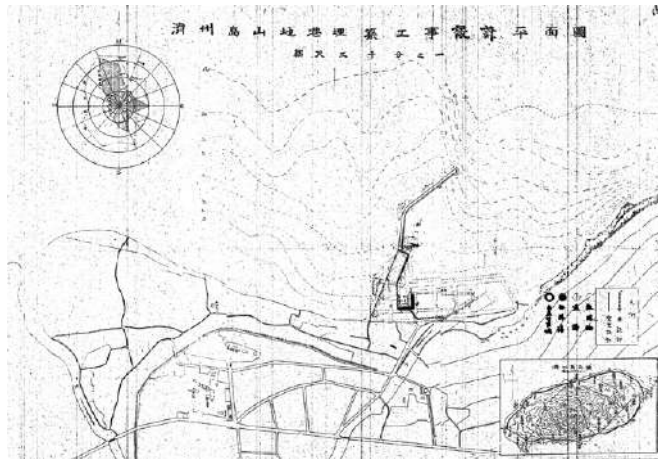




1



2



3

## 포구, 항구가 되다

일제강점기 이후 건입포는 제주의 관문이자 개항장인 산지항으로 거듭나면서 제주항의 모태가 되었다. 산지항 축항은 초기 계획부터 3기 축항까지 약 20년이 소요된 일제강점기 제주 지역의 최대 개발사업이었다고 볼 수 있다.

1

일제강점기 산지항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기록한 사진들(사진 김성훈)

2

제주항 건설 이전의 산지포 주변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누리)

3

제주도 산지항 매축공사 설계 평면도 (출처: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 기록(CJA0002681))



4



4



5



6

4

제주항의 옛 사진들(사진 김성훈)

5

개항초기 하역작업(제주특별자치도 향운노동조합)

6

1960년대 말 앞돈지(제주특별자치도, 공공누리)

7

현재 제주항의 모습(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의 관문, 제주항

해방 이후 산지포 항만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산지항의 명칭이 제주항으로 바뀌었으며 무역항으로 지정되었다. 제주항은 제주 물류의 중심지이자 제주의 최대 어장이었다.

1990년대 국가 주도의 항만개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등 제주도 관문항으로서 종합 기능을 확보하고 국제 규모의 관광 지원 항만으로 개발하기 위한 제주항 개발은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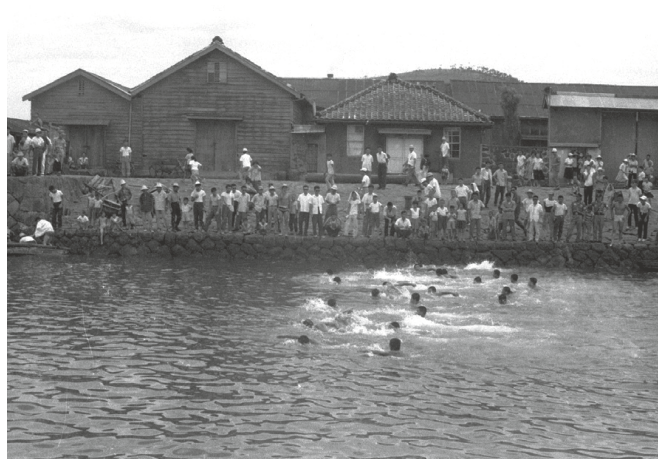




1



2



3

## 제주항, 서부두

제주항은 단순히 '제주의 관문' 만이 아니었다.  
제주항, 특히 서부두와 앞돈지는 제주 사람들에게 있어 쉼터이자 놀이터, 삶의 터전이였다.

- 1 제주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제주항의 모습을 기록한 사진들(사진 김성훈)
- 2 보리를 말리기도 했던 서부두 방파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누리)
- 3 서부두 앞돈지 수영대회(사진 서재철)



4



5



6

- 4 김익수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고승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인터뷰 영상 감상 코너(사진 김성훈)
- 5 김익수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 6 고승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 제주항과 함께한 사람들

김익수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이 들려주는 역사 속 건입 포구와 산지항의 개발과정, 제주항을 오가던 여객선 이야기, 고승화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들려주는 그시절 제주항의 이모저모 등 다채로운 제주항 이야기를 영상으로 기록했다.



## 제45회 만덕제 봉행

‘나눔으로 더 큰 내일’

2024 김만덕 주간행사로 사라봉 모충사에서  
차비대령(差備待令)인 행수의녀(行首醫女)  
김만덕을 기리는 만덕제 봉행







1



2

1 헌폐례를 행하고 있는 제관들의 모습

2 내빈 헌화 및 분향 진행 모습

3 만덕제를 행하고 있는 제관

4 테아헌례를 행하고 있는 제관들의 모습

5 내빈 헌화 및 분향 모습

6 만덕제를 관람하고 있는 내빈들

‘나눔으로 더 나은 내일’을 주제로 2024 김만덕주간의 행사를 알리는 ‘제45회 만덕제 및 김만덕상 시상식’이 10월 20일 오전 10시 제주시 사라봉 모충사 내 김만덕 묘탑에서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단법인 김만덕재단(이사장 양원찬)이 주최하고 김만덕기념관(관장 강영진)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김해김씨좌정승공파종친회, 역대 김만덕상 수상자, 여성계와 경제계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의녀반수 김만덕을 추모하며 김만덕의 나눔과 정신을 기렸다.

이날 만덕제는 봉제 선언, 고두심 김만덕재단 이사장의 ‘김만덕일대기 낭독’, 김애숙 정무부지사의 헌화 및 분향, 제례봉행, 기관장 및 단체장의 분향, 폐제 순서로 진행되었다.

제관은 여성단체 등 각 분야에서 추천된 여성 12명인데, 명단은 다음과 같다.

△초헌관=변명호(제44회 김만덕상 봉사 부문 수상자) △아헌관=강길순(김해김씨좌정승공파종친회 부녀회 이사) △중헌관=권미애(아라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대축=허숙희(서귀포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봉향=고영숙(서귀포시 영천동새마을부녀회 회장) △봉로=정문경(제주시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 △봉작=김서윤(국제라이온스협회 354-G 지구 연수위원) △전작=고미라(국제소롭티미스트 제주클럽 회원) △사준=최연수(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 이사) △집례=강은숙(제주특별자치도 청존샘봉사회 회장) △찬자=황순자(제주특별자치도 여성단체협의회 이사) △찬인=김나솔(제주스타트업협회 부회장)

한편 올해 만덕제는 그동안 어려운 한자나 문어체로 쓰여진 홀기(제례의 순서를 적은 글)와 축문 등을 알아듣기 쉬운 말로 전달해 참석자들에게 공감

을 더했다. 



3



4



5



6



# 제45회 김만덕상 시상식

## 봉사부문 김춘열·경제인부문 김미자 씨 수상

김만덕상 시상식은 테너 김신규와 리본제주아카데미중창단의 ‘김만덕의 노래’를 시작으로 김애숙 정무부지사의 인사말, 2024년 김만덕상 수상자 공적보고 및 시상,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대신해 참석한 김애숙 정무부지사가 수상자인 김춘열 씨(봉사부문, 77)와 김미자 씨(경제인 부문, 59)에게 상패와 상금 5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제45회 김만덕상 시상 후 기념촬영

수상자의 공적내용은 다음과 같다.

△봉사부문 김춘열=김 씨는 1960년부터 4-H 농촌 운동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해 노인복지시설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실천해 왔다. 2001년부터 노인복지시설에서 배식과 목욕 등 봉사 활동을 주 1회 이상 지속해왔다. 또 직접 물질하여 바다에서 채취한 우뚝가사리로 목을 만들어 주변 어르신과 장애인시설에 나눠주는 일을 10여 년간 이어왔다.

이 외에도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 청정바다 만들기, 어린이 안전체험관 봉사, 제주국제공항 친절서비스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경제인 부문 김미자=김미자 씨는 2017년부터 서귀포수협조합장을 지내면서 여성경영인으로 탁월한 경영능력과 리더십을 발휘하며 어민 소득 증대와 어업인 복지 증진에 힘써왔다. 특히 여성 어업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지원하는 등 서귀포수산업 발전에 헌신했다. 또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서귀포시 후원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 기부 문화 확대에 기여했다.

김애숙 정무부지사는 “제주도정은 지난 8월 조례를 개정하여 김만덕국제상을 신설함으로써 김만덕의 나눔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고 빈곤퇴치에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면서 ”의인 김만덕을 추모하는 만덕제를 맞아,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신 김만덕의 정신을 다시한번 되새기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 테너 김신규와 리본제주아카데미중창단의 ‘김만덕의 노래’ 합창

2 김애숙 정무부지사의 인사말

3 제45회 김만덕상 봉사부문 수상자 김춘열 씨

4 제45회 김만덕상 경제부문 수상자 김미자 씨



1



2



3



4



## 2024 김만덕 주간 나눔 큰 잔치

김만덕 만장행렬 첫 선... 김만덕 정신 세대전승 의미 담아  
김만덕 재단, 제주시·서귀포시 10t 나눔쌀 기부  
박수현무용단 '기림무' 개막공연 “박수갈채”







1

2024 김만덕 주간 ‘나눔 큰 잔치’가 10월 20일 오후 김만덕기념관 일원에서 김만덕 상 수상자와 만덕제 제관, 도민과 관광객이 참석한 가운데 화려하게 개막됐다. ‘나눔 큰 잔치’는 김만덕 만장행렬로 시작돼 다양한 나눔, 체험 행사와 무대 공연 등이 이뤄져 행사에 참석한 관람객에게 김만덕의 나눔의 삶과 가치를 공유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나눔 큰 잔치 개막식에 앞서 오후 1시 제주시 동문로타리에서부터 행사장 구간까지 진행된 김만덕 만장행렬이 올해 처음 시도된 행사로 눈길을 모았다.

함덕고등학교 백파취타대의 연주로 시작된 이 행사는 김만덕 제례-김만덕상 시상식-나눔 큰 잔치의 연결, 김만덕과 김만덕상 수상자의 연결, 김만덕의 묘와 김만덕기념관의 연결을 의미하며 김만덕 나눔정신의 세대 전승과 공간의 전이를 담아냈다.

이날 행렬에 참석한 김만덕상 수상자와 만덕제 제관, 역대 김만덕상 수상자, 도민과 관광객들은 김만덕 행사장까지 걸으며 김만덕의 삶과 정신을 기렸다.

한편 백파취타대는 1984년 창단되어 40년째 역사를 이어오며 도내외 다양한 문화 행사에서 우리 전통악기의 매력과 가치를 전하고 있다.

개막식에서는 조선 정조년간 흥년으로 굶주림으로 고통받은 제주백성에게 쌀을 내놓아 살린 김만덕의 기부정신을 기려 김만덕재단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10톤의 나눔쌀을 전달하고, 도내 다자녀 취약가구를 위해 제주은행 김만덕나눔적금으로 조성된 지원금 2,00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1 김만덕 만장행렬에 참가한 함덕고등학교 백파취타대의 연주 모습

2 김만덕재단,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나눔쌀 전달

3 제주은행, 김만덕나눔적금 지원금 기탁



2



3





제주 박수현무용단의 김만덕 기림무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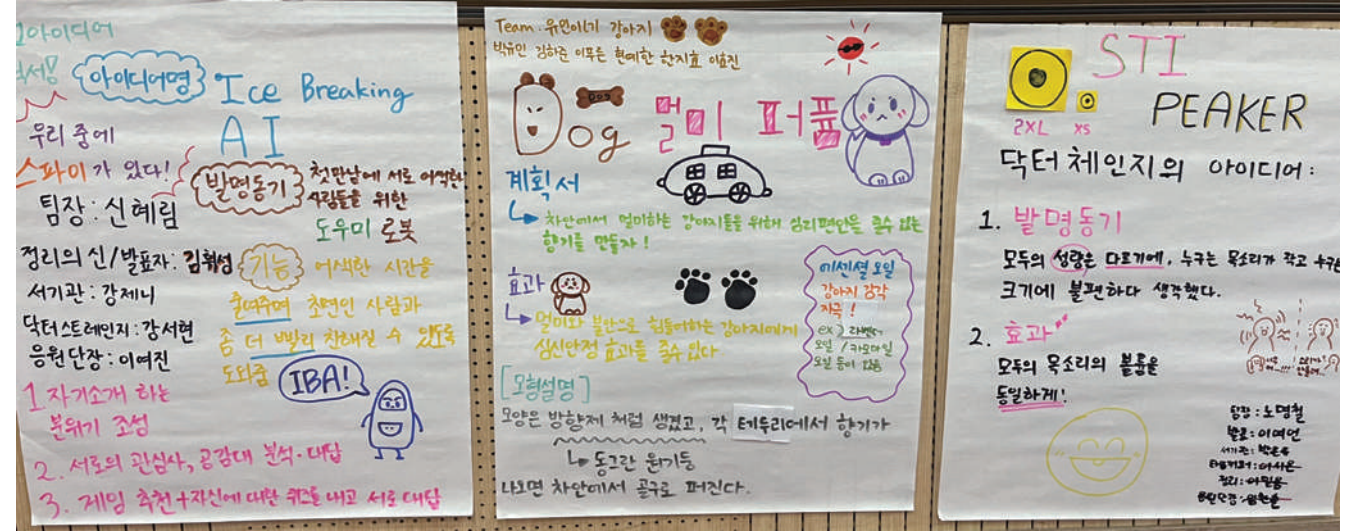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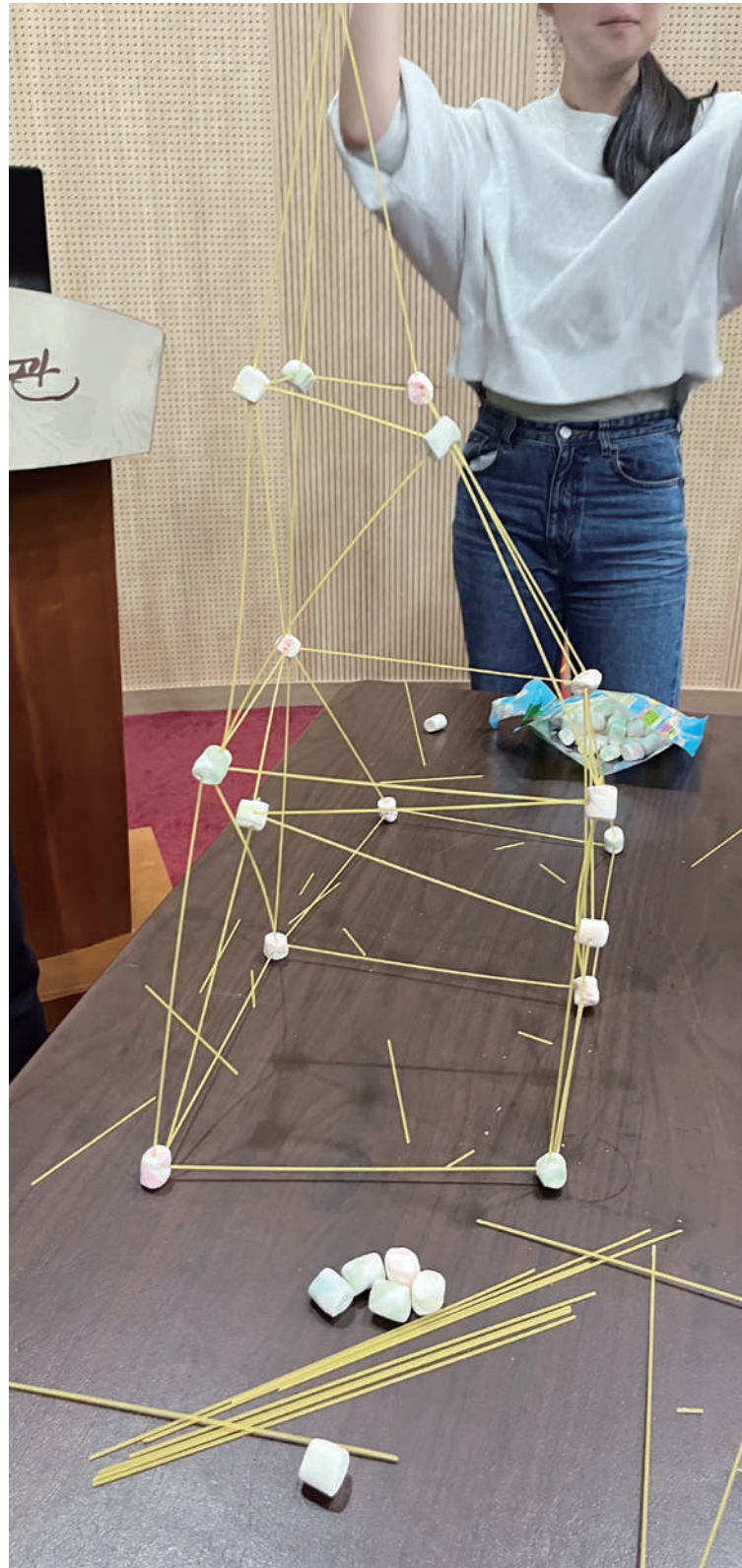
이어 개막공연으로 제주 박수현무용단이 김만덕의 생애를 기리는 ‘김만덕 기림무’를 선보였다. 15분간 진행된 기림무는 만덕이 기녀로서 신분을 떨치고 스스로 자유인이 되어 굶주린 백성을 구하고 공동체적 삶을 실천한 대자유인으로 그려졌다. 개막식에 이어 행사장에서는 김만덕 보물 찾기, 버블쇼, 어린이 나눔 장터, 솜사탕 나눔, 고민나눔관, 봉사활동 체험관, 도서·꽃모종 나눔관 등 다양한 도민 참여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특히 김만덕상수상자회 부스에서는 역대 김만덕상 수상자들이 나눔 큰 잔치 참가자들에게 떡을 나누며 김만덕의 구휼을 재현했다. 나눔 큰 잔치 문화 공연은 ‘테너 김신규’와 ‘리본 아카데미중창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을 무대로 현대적인 국악과 전통적인 국악을 변주해 대중에게 선보이는 제주국악실내악단 ‘더풍낭’의 연주가 이어졌다. 이어 창작오페라 이종섭의 안무를 담당한 ‘무용가 박수현’이 김만덕의 나눔정신을 표현한 독무를 선보였고, 남성듀오 ‘밤의 노래’의 무대에 이어 클래식 팝페라그룹 ‘피오레’의 공연으로 대미를 장식했다. 📖



# 2024 김만덕 주간 행사 프로그램

## 청소년 창업 아카데미

10월 2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김만덕기념관 만덕홀에서 청소년 창업 아카데미를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제주창업체험교육지원센터의 고은희 센터장이 지도하였으며, 학생들은 김만덕의 '기업가 정신'에 대해 배우고 체인지 메이킹 활동을 통해 공감과 문제의 관계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팀을 구성하여 창업 아이디어 기획서를 작성하고 발표하면서 청소년 시기 협력적 문제 해결 역량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 올레 만덕산책

10월 26일 오전 9시 30분 제주 성안올레 1코스를 걷는 '올레 만덕산책'이 개최됐다. 성안올레 1코스는 제주 원도심 올레길로, 동자복, 건입동 벽화길, 사라봉, 모충사 등을 걷는 6km 구간이다. 제주올레에서 나온 길동무의 동행 아래 안전하게 진행했으며, 길동무의 해설과 함께 아름다운 제주 원도심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모든 참가자들이 성안올레 1코스를 완주하여 행사를 안전하게 마무리했다. 





여성, 제례에 참여하다  
제례, 그리고 여성  
조선 왕비의 의례 친잠례

여성, 제례 참여자에서  
추모의 대상으로  
제주의 의인, 김만덕을 기리다  
조선의 여인을 기리다

의암별제  
신사임당 추모제  
임윤지당 열 선양 한다례  
동도 명기 흥도 최계옥 추모예술제



2024 김만덕주간 기획전시  
여성 인물 추모제  
지역 사례 공유



## 2024 김만덕주간 여성 인물 추모제 지역사례 공유

김만덕기념관에서는 2024 김만덕주간을 맞이하여 10월 20일 전국의 여성 인물에 대한 추모제 사례를 공유하는 기획전시를 개최했다. 또 이날 전시와 연계하여 지역 사례 발표회와 업무 협약이 함께 이루어졌다.

전국 최초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여성 문화가 향상되고 전국적인 관계망이 구축되는 첫 발걸음을 떼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Jeju 제주특별자치도

2024 김만덕주간 기획전시

여성 인물 추모제

지역 사례 공유

기획전시  
2024.  
10.20.(일)  
12.31.(화)

발표회  
2024.  
10.20.(일)  
14:00~16:00

Jeju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제주문화재단





“  
여성 문화 향상 ·  
전국적 관계망 구축의  
기회가 되길  
”



김만덕기념관 강영진 관장

#### 업무협약식

발표회와 전시에 앞서 이번 지역사례 공유에 참여한 기관들의 업무협약식이 열렸다.(사진 위)

김만덕기념관과 한국여성예림회 강릉지회, 한국여성예림회 원주지회, 홍도 최계옥 기념사업회는 여성 인물 추모제 관련 지역사례 공유와 여성 문화 향상을 위한 관계망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각 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여성 인물 추모제 활성화를 위한 대외 홍보, 학술 및 연구 교류 등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 ‘여성 인물 추모제 지역사례 공유’ 발표회

‘여성 인물 추모제 지역사례 공유’ 발표회는 10월 20일 오후 2시, 김만덕기념관 만덕홀에서 진행되었다. 먼저 김만덕기념관 강영진 관장이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하였다.

강영진 관장: “2024 김만덕주간을 맞아 만덕제뿐 아니라 각 지역의 여성 인물 추모제에 관한 사례 공유의 장을 전국 최초로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발표회와 전시를 통해 여성 문화가 향상되고 전국적인 관계망이 구축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  
여성 문화 교류 협력망이  
더욱더 커져 나가기를  
”



제주특별자치도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의 축하가 이어졌다.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 “전국 최초로 이런 여성 문화 교류의 장이 김만덕기념관에서 열리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가 첫 발걸음이 되어, 전국적으로 여성 문화를 교류해 나가는 협력망이 더욱더 커져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발표는 제주의 만덕제, 진주의 의암별제, 강릉의 신사임당 추모제, 원주의 임윤지당 일 선양 한다례, 경주의 동도 명기 홍도 최계옥 추모예술제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김만덕기념관 김세영 학예사가 제주의 의인, 김만덕을 기리는 만덕제에 대한 발표로 첫 운을 띄웠다.

#### 만덕제

제주의 의인, 김만덕을 기리는 만덕제는 1980년 10월 28일, 한라문화제 전야제로 시작이 되었다. 당시에는 여성 대표, 여고생 등으로 제관이 구성되어 봉행하였다. 현재는 삼현관(초현관, 아현관, 중현관)을 비롯해 대축(축문을 읽



제주 김만덕기념관 김세영 학예사의 '제주 만덕제' 발표 장면



는 제관), 봉향(향합을 담당하는 제관), 봉로(향로를 담당하는 제관), 봉작(술잔을 받드는 제관), 전작(술잔을 신위 앞에 올리는 제관), 사준(제주 담당자), 집례(홀기를 부르는 제관), 찬자(홀기를 따라 부르는 제관), 찬인(헌관을 모시고 안내하는 제관) 12인의 제관들이 봉행하고 있으며 이들은 매년 덕망 있는 여성들로 선정한다.

만덕제는 유교식 제례로 봉행이 된다. 봉제 순서를 살펴보면 ①봉제 선언 ②헌화 ③점시례 ④관세례 ⑤참신례 ⑥분향례 ⑦초헌례 ⑧아헌례 ⑨종헌례 ⑩진다례 ⑪음복례 ⑫사신례 ⑬분축례 순으로 진행된다.

발표는 “만덕제는 그 옛날로부터 크게 변화된 점 없이 1980년부터 45회째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만덕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이 함께하고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요소가 조화롭게 활용하여 김만덕의 삶의 모습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마무리 되었다.

### 의암별제

진주의 의기, 논개를 기리는 의암별제에 대해서는 의암별제를 주관하고 있는 진주민속예술보존회 소속이자 경상국립대학교 학술연구교수인 양지선 교수가 발표하였다.

진주의 관기였던 논개는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이 함락되자 왜장을 안고 순국한 인물이다. 논개 순국 300여 년 후인 1868년 진주목사 정현석이 의기사당을 중건하고 6월 중에 길일을 택하여 의암별제가무를 지내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의암별제의 시작이다.

제관들은 진주 교방의 관기들로 구성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헌관 3인(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집사 12인(당상집례, 당하집례, 대축, 전사관, 찬자 2인, 알자, 사준, 봉작, 전작, 봉향, 봉로)가 있었으며 ‘의암별제가무’라는 이름처럼 다른 제례와는 달리 가자(歌者, 노래 부르는 사람) 8인, 무자(舞者, 춤추는 사람) 12인, 당상악공 5인, 당하악공 6인이 함께 참석한다.

의암별제는 음악과 춤이 함께하는 제례다. 첫 번째 순서인 영신례에서는 영신곡을 연주하며 상향례-

초헌례-아헌례-삼헌례 동안 음악 연주와 노래, 춤이 함께 진상된다. 처사가조의 의암별곡을 따로 헌창(獻唱)하고 제기무(諸妓舞) 제관 이하 참관한 모든 기녀가 춤을 추는 헌무(獻舞)의 순서가 따로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제사에 쓰인 그릇을 물리는 것으로 제사가 마무리된다. 제사를 마치면 제사음식을 나눠주고 모두가 즐기는 축제로 이어진다.

의암별제는 일제강점기인 1920년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가 1927년 진주 권번에 의해 재개되었다. 광복 이후에는 진주 기생들의 모임인 의기창렬회에서 논개에 대한 제향만 주관하였다가 진주검무무형유산인 최순이와 성계옥의 노력으로 1992년 의암별제가무가 복원,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의암별제는 신위순행-영신례-상향례-초헌례-아헌례-종헌례-사신례-진주검무 헌상-음복례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진주의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한국 교방문화의 정체성을 표현, 한국 예술축제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의암별제는 현재 무형문화재 지정을 목표로 조사·연구 및 기록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신사임당 추모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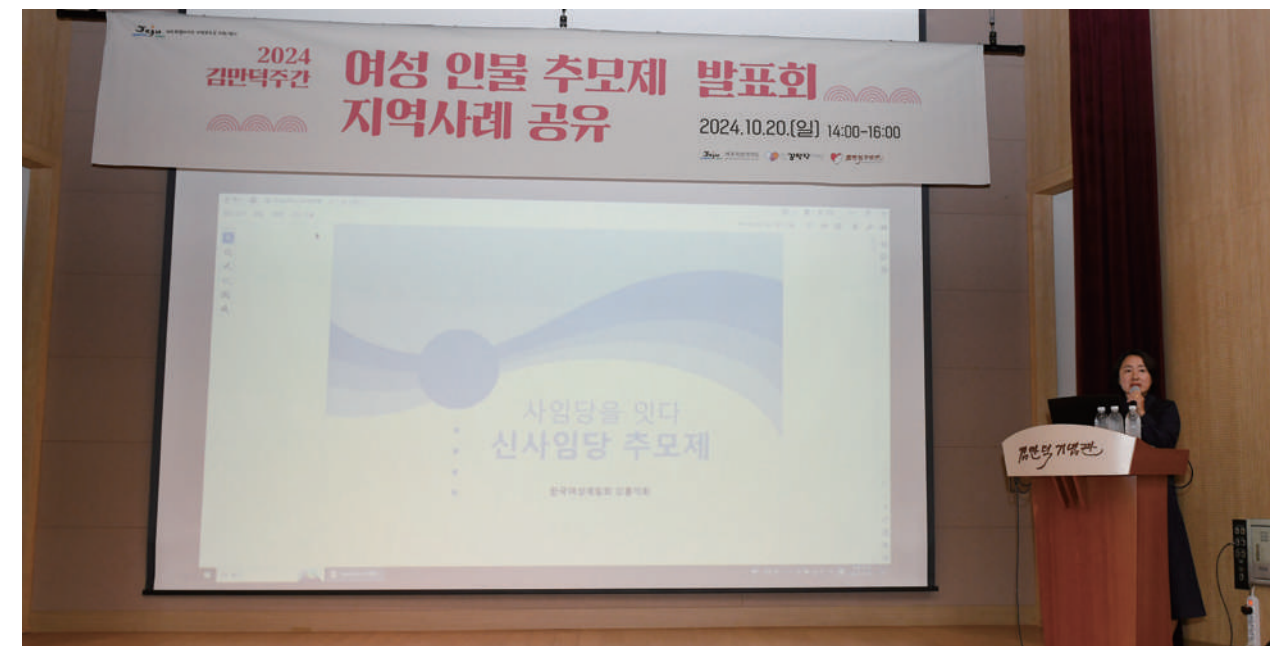
신사임당을 기리는 신사임당 추모제에 대해서는 한국여성예림회 강릉지회 류연교 회장이 발표에 나섰다. 강릉 예림회는 1991년 강릉선교장 안주인인 성기희 교수가 전통 예절을 승계·보존해야겠다는 큰 뜻을 품고 15명의 회원과 함께 창단한 단체이다.

강릉에서 율곡 이이의 제례는 매년 치러지는데 비해 그 어머니인 신사임당의 제례는 한 번도 올리지 못했음이 안타까워 강릉 예림회에서 여성들이 주도하는 사임당 제례를 구안해 보기로 결정,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2002년부터 사임당 추모제를 봉행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강릉 예림회의 자체 예산으로 추모제를 지내다가 2006년부터 강원도에서 예산을 지원받기 시작하여 현재는 매년 양력 5월17일 오죽헌 몽룡실에서 ‘사임당 얼 선양 사업’의 하나로 제례를 봉행하고 있다. 강릉 예림회에서는 제주 빚기를 시작으로 제수 준비, 제례 진행과 음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주도하고 있다.

제관은 모두 여성으로 구성된다. 삼헌관 중 초헌관



경상대학교 양지선 학술연구교수의 '의암별제' 발표 장면



한국여성예림회 강릉지회 류연교 회장의 '신사임당 추모제' 발표 장면



은 강원도지사 부인, 아현관은 강릉시장 부인, 그리고 종현관은 예림회장이나 귀감이 되고 존경받는 여성으로 선정한다. 제집사와 집례, 찬인은 예림회원 중에서 선정하고 제례는 의례문서인 홀기에 의해 분방, 강신례, 참신례,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사신례, 자유분향, 음복례 순서로 진행한다. 여성들이 주관하여 봉행하는 전통 제례가 흔하지 않은만큼 주변의 관심,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감,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함에 있어서의 한계 등 어려움도 많았으나 현재 강릉에서 신사임당 추모제는 그만의 고유한 의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추모제를 주관하는 강릉 예림회에서는 이러한 고귀한 전통을 후대가 이어가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다. ‘예림회원들만의 제례’가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임당의 뜻을 기리고 이어가는 추모제로 거듭나길 기원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임윤지당 일 선양 헌다례

세 번째 발표로 원주의 여성 성리학자 임윤지당을 기리는 임윤지당 일 선양 헌다례가 이어졌다. 발표는 임윤지당 일 선양 헌다례를 주관하고 있는 한국여성예림회 원주시회의 이동희 회장이 맡았다. 임윤지당(1721~1793)은 조선 후기에 원주에 살았던 여성학자이며 어릴 때부터 한문을 익혀 시문에 능했다. 전근대시대에 시문에 능한 여성은 적지 않았지만, 성리학을 연구한 여성학자는 드물었다. 중년 이후에는 성리학 연구에 몰두하여 많은 저술을 남겼다. 원주시에서는 지역을 빛낸 조선시대 여성 성리학자 ‘임윤지당’을 기념하고 임윤지당이 가진 양성평등 사상 전파로 지역 여성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한국여성예림회 원주시지회 주관으로 ‘임윤지당 일 선양 헌다례’를 개최하고 있다. 매년 양력 5월 14일에 개최되는 헌다례는 강원도



강원도 원주의 여성성리학자 임윤지당 헌다례를 발표중인 이동희 회장

지사 부인이 초헌관을, 원주시장 부인이 아헌관을, 원주시의회 의장의 부인이 종헌관을 맡는다. 그 외 제관은 원주시 예림회에서 맡아 진행한다. ‘헌다례’라는 이름처럼 보통의 제례와는 다르게 ‘차’를 올리는 제례로 진행이 된다. 초를 올리는 헌초, 향을 올리는 헌향, 꽃을 올리는 헌다로 구성되며 전통 방식에 기반한 현대적인 제례다. 헌다례가 끝난 이후에는 음복 대신 찻자리(들차회)를 통해 제례에 참여한 사람들이 차와 다과를 나눠 먹는다. 임윤지당의 인지도 강화를 위하여 헌다례뿐만 아니라 서화전, 사생대회, 인형극, 뮤지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양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원주 지역의 인물에서 전국적인 인물로서의 ‘임윤지당’ 선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홍도 최계옥 추모예술제

마지막으로 재)진흥문화재연구원 이사장이자 (사)홍도 최계옥 기념사업회 회장인 김호상 회장이 경주의 ‘홍도 최계옥 추모예술제’에 대해 발표했다.



경주 ‘홍도 최계옥 추모예술제’를 발표 중인 김호상 회장

홍도의 이름은 최계옥(崔桂玉, 1778~1822)으로 경주 향리 출신 아버지와 기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관기 교육을 받은 최계옥은 20세의 나이에 경주 부윤의 추천으로 궁궐에 들어갔으며 뛰어난 노래와 춤으로 주목을 받아 정조 임금으로부터 ‘홍도(紅桃)’라는 별호를 받게 되었다. 김만덕이 제주 백성을 구휼하고 서울에 올라와 장안의 화제가 되자, 김만덕에게 시를 지어준 일화가 『범곡기문』과 『이향견문록』에 전한다. 정조의 장인이었던 박준원이 홍도를 좋아하자, 정조는 홍도를 박준원의 외부(外婦·妾)로 보냈다. 박준원과 10여 년을 함께 산 홍도는 박준원과 사별한 이후 고향인 경주로 돌아와 소리꾼, 기생, 악사들을 가르치다 45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그녀가 죽은 뒤 28년이 지난 1851년(철종 2년)에 이르러 경주 교방에서 재물을 모으고 지역의 인사들이 글을

지어 그녀의 무덤 앞에 ‘동도명기홍도지묘(東都名妓紅桃之墓)’라 쓴 묘비를 세워 기념하였다. 홍도 최계옥의 묘와 묘비가 있던 형제산 기슭이 택지지구로 개발되면서 홍도가 잊혀질 위기에 처하자, 경주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나서 2015년 ‘홍도 최계옥 기념사업회’를 구성하였다. 이들은 금강대 아래 소공원에 홍도의 추모비를 세우고 매년 10월 중 좋은 날을 정해 ‘홍도 최계옥 추모예술제’를 지내고 있다. ‘홍도 최계옥 추모예술제’는 앞서 다른 여성 인물 추모제처럼 여성만으로 구성되어 진행되는 제례는 아니다. 하지만 남녀를 가리지 않고 ‘여성 인물’을 기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여성 제례들이 교훈을 삼아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사례로서 그 의미가 있다.



## 발표회를 마치며

모든 발표가 끝난 이후 발표회를 참관한 관객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전국 최초로 열린 자리인 만큼 각 지역의 사례에 대한 기초적인 질문부터 추모제에 대한 현재의 문제·한계점, 앞으로의 발전 방안 등을 제시하는 조언들이 나왔다. 제례를 주관하는 단체들이 조금 더 주체적으로 나서서 그 ‘인물’과 ‘추모제’에 대해 알려야 하며 옛 방식만을 고집하여 제례를 이어가기 보다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추모제를 통해 인물을 기리는 방식으로 발전해 나가자는 의견들이 공통적이었다.

발표자들은 이번 지역 사례 공유가 각 여성인물 추모제의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 여성 문화가 향상되고 전국적인 관계망이 구축되는 데 서로 협력할 것을 굳게 다짐했다.



여성 인물 추모제 발표회 중 토론 장면



여성 인물 추모제 발표회 참석자 기념촬영



## 여성인물 추모제례전 첫 전국 전시

### 기획전시

전시는 김만덕기념관 1, 2층 만덕갤러리에서 진행되었다. 여성인물 사례 발표회 때 소개된 만덕제, 의암별제, 신사임당추모제, 임윤지당 열 선양 헌다례, 동도 명기 홍도 최계옥 추모예술제 다섯 제례를 비롯하여 전국의 여성 인물 추모제 및 의례 현황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하였다.

### 여성, 제례에 참여하다

예로부터 전통적인 제례는 유교의 영향으로 남성들만 참여하는 남성 중심의 행사였다. 대부분의 제사 의례의 주체는 남성으로, 여성이 주체가 된 제사 의례의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이다.

기록 속에 남아 있는 여성이 주체가 된 제사로는 조선 왕비가 주관한 의례인 ‘친잠례’가 있다. 친잠(親蠶)은 선잠제(선잠(누에치기)의 신인 서릉씨에게 드리는 제사) 때, 왕비가 뽕잎을 따서 제사에 입을 왕의 제복을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시행된 제례로, 그 기록이 『춘관통고』와 『친잠의궤』에 기록되어 있다.

### 여성, 제례 참여자에서 추모의 대상으로

제례에 참여하던 여성들은 이후 추모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제주의 의인 김만덕, 진주의 의기 논개, 강릉의 여성 예술가 신사임당, 원주의 여성 성리학자 임윤지당, 경주의 예인 홍도 최계옥이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각 인물과 추모제에 대해 살펴보고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여성 인물에 대한 추모제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12월 31일까지 김만덕기념관에서 열린 전국 여성 인물 추모 기획전 모습



## 김만덕기념관 개관9주년 기념

김만덕기념관은 5월 29일 개관 9주년을 맞아 특별기획사진전 ‘산지천 포구, 항구가 되다’를 개막했다. 또 김만덕기념관 SNS인 인스타그램에서 개관 9주년 축하 댓글 이벤트를 개최했다. 일주일간 진행된 이번 이벤트에서는 426명의 좋아요와 441개의 축하 댓글을 받았다.



## 김만덕기념관 나눔봉사학교 만덕서포터즈

김만덕기념관에서는 일상적인 나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나눔문화 교육공간 조성을 위해 <김만덕기념관 만덕서포터즈>를 운영했다. 3월 ‘김만덕기념관 만덕서포터즈’ 위촉식 및 나눔봉사학교 자원봉사자 양성 교육을 개최했다. 서포터즈 위촉자와 자원봉사 교육 이수자는 각 44명이다. 위촉식과 교육을 마친 서포터즈들은 매주 토요일 김만덕기념관 도서관 나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나눔문화를 조성하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 특히 4월 마지막주 토요일(4월 27일)은 ‘토요일은 김만덕!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이호해변 플로깅으로 해안 쓰레기를 치웠고, 10월 김만덕 주간에는 ‘나눔큰잔치’ 부스 운영 봉사활동도 진행하며 봉사하는 삶을 실천했다.

30회  
597시간

2024년 만덕서포터즈 봉사활동

763권

2024년 만덕서포터즈 도서관 나눔



## 만덕서포터즈 여러분을 기록합니다



### 우리들의 이야기

#### 만덕서포터즈 유명숙

만덕서포터즈 위촉식을 마치고 아주 열심히 해 봐야지 결심했는데, 다른 업무와 시간 조율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 먹은대로 도서관 나눔 봉사에 적극 참여를 못했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더 컸지만, 처음 해 본 도서관 나눔은 의미있는 봉사경험이었습니다. 또 김만덕 할머니를 새롭게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내년 김만덕주간 행사에서 도서관 나눔 부스를 운영하며 봉사와 나눔의 가치를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가 ‘1365 자원봉사’ 플랫폼에 소개돼 기억에 오래 남는다.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과 죄송함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 뿌듯하고 의미 있는 일년

#### 만덕서포터즈 김유경

지난 3월 김만덕기념관 나눔봉사학교 자원봉사자 양성 교육 및 서포터즈 위촉식을 진행했다. 4월 이호 테우해변 플로깅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5월부터 도서관 나눔을 하고, 10월에는 김만덕주간 나눔큰잔치에서 바람개비 만들기, 모빌 만들기 부스를 운영하며 즐거웠습니다. 김만덕 행사 중 김만덕 보물찾기 시간이 되자 저 멀리서 저를 향해 뛰어오는 애들이 “혹시 보물 있어요?”라고 물어보고 “없다”고 하니 아쉬워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내년에는 그 아이들을 위한 보물을 숨겨두리라.

김만덕기념관의 만덕서포터즈 활동으로 뿌듯하고 의미있는 한 해였습니다.

## 나눔, 봉사 생각해보기

### 1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or 아니오(3번 항목으로)

### 2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신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가) 남을 돕는 것이 행복하므로
- 나)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사회문제를 해결하려고
- 다) 시민의 책임이므로
- 라) 남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이를 갚고 싶으므로
- 마) 종교적 신념을 실천하려고
- 바) 여가시간을 의미 있게 활용하려고
- 사) 학교나 직장 등에서의 단체활동에 동참하려고
- 아) 진학 취업 등 자기개발에 도움이 되므로

### 3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신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가) 자원봉사에 관심이 없으므로
- 나)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 다) 자원봉사 활동 경비가 부담되므로
- 라) 자원봉사 참여 방법을 모르므로
- 마) 신체적, 정신적 질환이나 장애가 있으므로
- 바) 희망하는 자원봉사 활동이 없으므로

### 4 귀하가 지난 1년 동안 참여한 자원봉사 활동 분야는 무엇입니까?(중복응답)

- 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관련 복지시설 및 가정방문
- 나) 환경 보전, 범죄 예방 등과 관련(마을 청소 등)
- 다) 자녀 교육 등과 관련(학교 봉사, 교통 지도 등)
- 라) 국가 및 지역 행사 등과 관련(행사보조 등)
- 마) 재해 지역 주민 돕기 등 시설 복구 등(해의 구조 포함)
- 바) 기타 일반인을 위한 봉사 활동(업무지원 등)

### 5 귀하는 향후 1년 이내에 자원봉사 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예 or 아니오(3번 항목으로)

※ 위 자원봉사 관련 문항은 통계청 「사회조사」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기를

만덕서포터즈 김형미

2024년 3월 어색한 만남으로 시작한 거의 일 년간의 따뜻한 봉사 여정.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만덕서포터즈 여러분과 좋은 경험을 쌓아서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만덕서포터즈 활동이 계속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 후회없는 봉사활동

만덕서포터즈 문정일

입도 3년, 아름다운 청정지역인 제주 지역사회를 위하여 무언가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만덕서포터즈 활동이었습니다.  
도서 나눔을 통하여 나눔의 시작을 알게 되었고, 헌책을 가져오면 새 책으로 바꾸어서 몇배의 나눔을 하는 아름다운 나눔이었습니다. 그것도 '책'이라는 아이টে으로 지식 나눔과 같았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온 아이들의 작은 손에는 헌책 한권, 그리고 그 손에 다시 주어지는 새 책들은 보통 계산적인 이치와는 다른 나눔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러한 나눔 정신을 미래의 주인인 아이들에게 경험하게 하고, 봉사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한 명 한 명도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김만덕기념관에서 여러 활동을 통하여 전해준 '나눔의 정신'과 '베푸는 삶' 이것이 김만덕 정신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만덕과 함께한 봉사활동은 나에게도 소중한 시간이었고, 행복했습니다.

## 성장했습니다

만덕서포터즈 문성원, 문유정, 오복선 가족

아이를 키워가면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듯 누리는 자연과 지역문화를 아름답게 아끼고 보존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올해 김만덕기념관에서 많은 걸 공유하고 나눔과 봉사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같은 생각을 갖고있는 사람들과 함께하여 희망찬 시간 보낸듯합니다. 아이들도 한뼘 성장했습니다.^^

## 타인의 행복에 느끼는 감정

만덕서포터즈 장선아, 장연아, 조혜인 가족

우연히 알게 된 '만덕서포터즈' 모집 소식을 듣고, 먼저 큰 아이에게 권유했다. 사서가 꿈인 아이는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다고 했다. 위촉식날 '만덕서포터즈' 명찰도 받고, 심폐소생과 장애인 활동보조, 휠체어 사용법 등을 교육받았다. 평소 몰랐던 불편함을 경험하고 삶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다.  
도서나눔활동은 나에게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김만덕기념관에 헌책 한 권을 갖고 오면, 새 책으로 가져가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참여자에게는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기념사진도 찍어 드렸는데, 기념관에서 행복한 추억을 남기고 가시는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았고, 뿌듯함을 느꼈다. 이에 작은 아이에게도 봉사활동을 권유하였고, 온가족이 함께 도서나눔 활동에 참여했다. 나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함을 느끼는 모습을 보고, 감회가 새로웠고 좋은 경험이 되었다.

## 행복한 시간

만덕서포터즈 김채린, 김봉남 가족

딸과 함께 김만덕기념관에서 봉사 활동을 시작하며 나눔의 의미를 배운 시간이 정말 뜻깊었다.  
봉사활동 중 "헌책 줄 게, 새 책 다오"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작은 실천이 모여 나눔의 확산되는 경험을 함께 했고, 딸이 관람객에게 사진도 찍어주며 봉사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뿌듯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 이웃을 돕는 즐거움

만덕서포터즈 지영준, 지은채, 김영주 가족

우리 가족은 첫째의 초등학교 입학의 계기로 자원봉사 활동을 김만덕기념관에서 시작했습니다. 플로깅 활동을 시작으로 도서나눔과 같은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웃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아이들에게 나눔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직접 경험하게 되어 무척 보람이 컸습니다. 특히 이웃을 돕는 일에 즐거움을 느끼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로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눔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며 더불어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모습을 보며, 지난 봉사활동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은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며,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눔의 기쁨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김만덕기념관과 소중한 경험은 우리 가족에게 큰 선물이 되었으며, 이 소중한 배움을 실천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만덕기념관 2024 교육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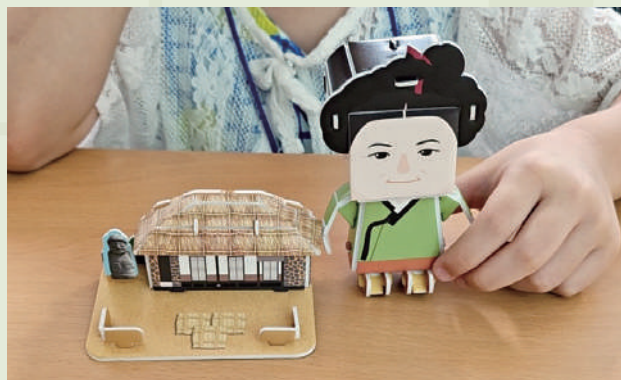
2024년 한 해 김만덕기념관에서는 어린이 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교육프로그램은 ‘토요일은 김만덕!’과 ‘찾아가는 김만덕기념관’으로 나뉘어 진행했다.

‘토요일은 김만덕!’은 매주 토요일 운영하는 상설 교육프로그램인데,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마련했다.

또 ‘찾아가는 김만덕기념관’ 프로그램은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이다. 작년과 달리 올해에는 참석대상을 초등학교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김만덕과 나눔 정신을 알리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 토요일은 김만덕! 상설교육 프로그램

매주 토요일 김만덕기념관을 방문하는 어린이 가족을 대상으로 한 김만덕과 나눔을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영상을 통해 김만덕의 일대기를 담은 동화를 보고 갓 만들기, 김만덕 입체 퍼즐 만들기 등 만들기 키트 자료를 활용하여 어린이들이 김만덕과 나눔이라는 주제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토요일은 김만덕! 체험프로그램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체험프로그램이다. 매월 다른 주제를 정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누구나 쉽게 방문할 수 있는 박물관 이미지를 만들어갔다. 진행한 체험 프로그램은 2월 김만덕투어, 3월 제주향 사진여행, 4월 시티투어 버스타고 플로깅 여행, 5월 성안올레 걷기, 7월 MBTI를 활용한 부모교육, 8월 마술공연, 9월 사라봉 숲 체험, 11월 나만의 바다 만들기이다.



### 만덕학교 찾아가는 김만덕기념관

도내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들과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다. 김만덕의 생애를 듣고 어린이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나눔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다. 이 교육을 통해 ‘돈이나 물건뿐만 아니라 자신의 시간, 노력을 들여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나눔이며 누구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하였다.





# 2024 김만덕기념관 만족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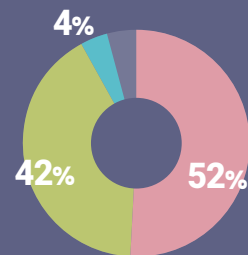
## 상반기

김만덕기념관(관장 강영진, 이하 기념관)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념관을 방문한 관람객 291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관람객 96%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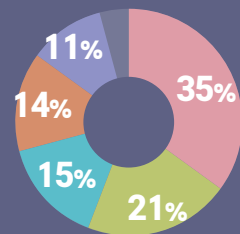
### 기념관 관람 만족도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 불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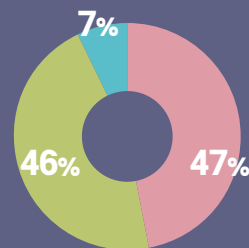
### 기념관 방문 목적

- 휴식 및 관람
- 주변시설 방문했다가 우연히
- 가족친지들과 여가활동
- 교육 및 연구목적
- 교육프로그램 및 특별행사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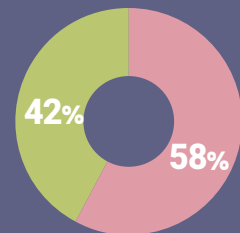
### 기념관 관람을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할 것인가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
-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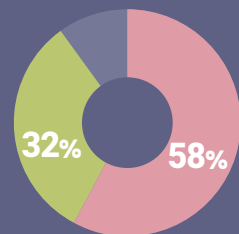
### 응답자 특성 성별

- 여성
-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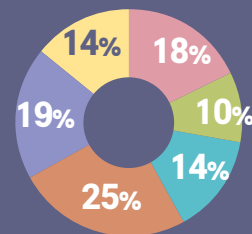
### 전시물을 설명하는 안내문, 표지판 등이 관람하는데 편리했는가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
-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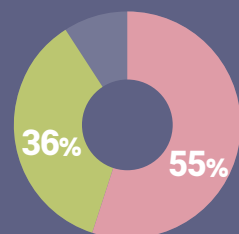
### 응답자 특성 연령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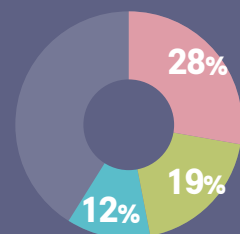
### 관람 및 전시물 안내를 쉽게 받을 수 있었는가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
-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



### 응답자 특성 지역별 거주지

- 제주
- 서울
- 경기



김만덕기념관은 만족도 조사에 응해 주신 응답자에게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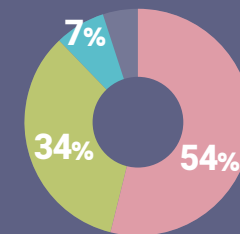
## 하반기

김만덕기념관(관장 강영진, 이하 기념관)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념관을 방문한 관람객 284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관람객 95%가 만족했다고 응답했다.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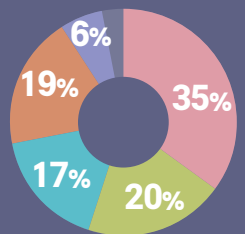
### 기념관 관람 만족도

- 매우 만족
- 만족
- 다소만족
- 보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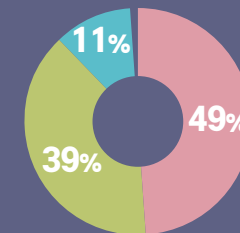
### 기념관 방문 목적

- 휴식 및 관람
- 주변시설 방문했다가 우연히
- 가족친지들과 여가활동
- 교육 및 연구목적
- 교육프로그램 및 특별행사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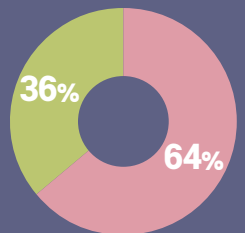
### 기념관 관람을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할 것인가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
-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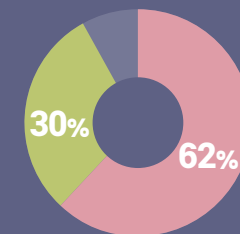
### 응답자 특성 성별

- 여성
-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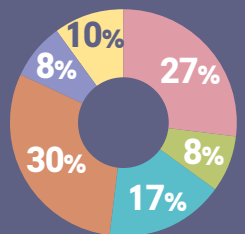
### 전시물을 설명하는 안내문, 표지판 등이 관람하는데 편리했는가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
-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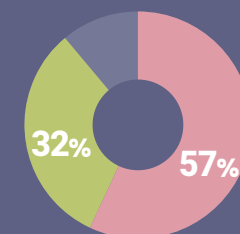
### 응답자 특성 연령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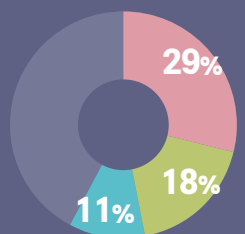
### 관람 및 전시물 안내를 쉽게 받을 수 있었는가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
-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



### 응답자 특성 지역별 거주지

- 제주
- 서울
- 경기







1월 25일 제주탐모라로타리클럽



2월 2일 국제로타리 3662지구 제주만덕로타리클럽



8월 3일 전복농협, 옥구농협, 김제농협



8월 13일 송연희 가족



2월 6일 제주지방기상청



3월 12일 대한적십자사



8월 21일 연화원



9월 10일 국제라이온스협회 354-G(제주)지구



4월 5일 제주사회복지협의회



4월 16일 동부종합사회복지관



9월 10일 제주지방기상청



10월 19일 김제농협쌀조공법인



5월 29일 사회복지협의회



6월 13일 대정읍장애인지원협의회



10월 22일 서귀포수협 서귀포은갈치축제, 제45회 김만덕상 경제부문 수상자 김미자



10월 23일 김만덕수상자회





10월 23일 제주시·서귀포시 푸드마켓



12월 13일 김순희 기부자



12월 17일 건입동 산지천축제운영위원회



12월 24일 한백김치



12월 11일 김만덕상수상자회



12월 13일 양채윤 기부자



12월 17일 태평수산 오재혁대표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 CMS후원자

(주)그린서비스 (주)씨니빌렌트카 (주)아성기술단 (주)우리방재 (주)한독카리스산전 탐라위생방역  
자매국수

강경필 강민수 강희자 고석연 고수자 고윤권 권나예 김기문 김기태 김미정 김복자 김상훈  
김수안 김수용 김순미 김시우 김연수 김영선 김영숙 김용석 김은희 김재윤 김재훈 김정미  
김조자 김종래 김종철 김준문 김추자 김치수 김치엽 김치엽 (고복희) 김향선 김형미 문관영  
문양식 문정홍 문형배 문호진 박동수 박미경 박선미 박선영 박순희 박정환 반성진 성경숙  
송기명 송승환 송연주 송연희 신원식 양은하 양진영 양채윤 양하건 오경지 위보환 유태익  
윤봉실 이가영 이금실 이유경 이은아 이정자 이종례 이종수 이치봉 이향숙 이회춘 이효인  
장혜련 전귀연 정경순 정명희 정자향 조윤경 좌봉남 진춘자 최명혜 최종태 한강연 현길호  
현성우 홍경여 홍민표 홍성만 홍용기 홍혜경 홍혜진

### 기부자

건입동 산지천축제운영위원회 고두심 국제라이온스협회 354-G지구 국제소롭티미스트 제주클럽  
김만덕기념관 문화관광해설사 김만덕상수상자회 김미자 김재영 김제농협 김혜미 문애순  
박선행 서귀포수협 송연희 가족 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오복진 오현개발 윤진호정형외과  
재단법인 덕산문화재단 전복농협 제주만덕로타리클럽 제주지방기상청 태평수산 클라우드나인  
한국난방공사 한라라이온스클럽 김창현 한양대 한명수 현동건 황윤진 희망나래

### 자원봉사자

강경하 강유진 강지연 고시연 고예성 고유리 고평주 권영훈 김경령 김나영 김민규 김민정  
김봉남 김서연 김영주 김유경 김은애 김정련 김정희 김지현 김지혜 김진경 김채린 김태오  
김형미 김효진 문성원 문수희 문유정 문정일 박기웅 박상민 박선정 박 윤 박지원 박해수  
박훈희 배정현 백은희 부원용 소경애 송민정 송유건 양서연 오만식 오민서 오복선 오수빈  
오연서 유명숙 유영애 윤혜란 이슬윤 이은아 이재민 장선아 장연아 전명미 조혜인 조호준  
지영준 지은채 최보라 홍수연

### 지원처

노형적십자봉사회 다자녀취약가구지원사업 지정기탁 대정읍장애인지원협의회 대정적십자봉사회  
도립노인요양원 동부종합사회복지관 동제주기초푸드뱅크 북부기초푸드뱅크 사랑나눔푸드마켓뱅크  
서귀포시청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서귀포행복나눔푸드마켓푸드뱅크 송악라이온스클럽  
송죽원 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연동주민센터 연화원 재일제주인지원사업 지정기탁  
제주만덕로타리클럽 제주시청 제주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광역푸드뱅크 조천적십자봉사회

이름을 밝히지 않은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김만덕기념관으로 또시 꼭 옵서~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 덕분에  
(재)김만덕재단과 김만덕기념관은  
김만덕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만덕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2025년 을사년에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김만덕재단에 후원한 기부금은  
대한민국 최초의 나눔문화 김만덕기념관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을 위한 '김만덕 사랑의 쌀' 나눔과  
국내 외 빈곤 퇴치를 위한 사업을 통해  
여러분의 사랑을 전해 드립니다.

